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2월)	2010.00 (-31.04P)	코스닥	669.37 (-6.28P)
환율(달러당 원화)	1119.00 (+3.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02% (-0.015%p)

제2049호  
남북평화 소망 담은 '백두산 맥주' 한정판 첫선 14  
김수민 의원 "정치권 여성 목소리 이끌어내야" 20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 재계, 미래 성장 '혁신'에서 답을 찾다

### 그룹 CEO 신년사 살펴보니

'초격차 100년 도약' 내세운 삼성 현대차는 4차 산업혁명 주도 선언 SK, 사회적 가치 실현 '행복 경영' '신뢰 회복' 강조했던 작년과 대비 '위기의 해' 공통인식 비장한 각오

- ### 그룹 CEO 신년사
-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00년 기업 도약 계기를 마련하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미래 분야 투자 지속해 4차산업혁명 주도하겠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하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의 기반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다같이 미래 건설"
  - 허창수** GS그룹 회장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앞으로 10년이 혁명적 변화시기 될 것"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 필요해"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구조혁신으로 초저가 시장에서 기회 찾아야"
  - 손경식** CJ그룹 회장  
"글로벌 경쟁력 확대 상대는 네슬레와 DHL, 그리고 디즈니"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주요 기업 CEO는 2일 '미래', '혁신', '신사업' 등으로 요약되는 올해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이던 지난해 초 신년사에서 '상생', '소통', '사회적 가치' 등 국민 신뢰 회복 메시지를 던졌던 것과 대비된다. 저 성장과 경기둔화,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및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10·11면

재계 만행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은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올해는 초일류·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며 "차세대 제품과 혁신 기술로 신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적 실패를 격려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미래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기준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며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고객과 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해야 SK 구성원의 행복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처음 맞은 시무식에서 임직원에게 '고객 가치 창출' 메시지를 던졌다. 구 회장은 "지난 70여 년 LG 성과의 기반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있었다"며 "새로운 LG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허 회장은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기 위해선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혁

명적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사업 경쟁력과 인재 확보 등 미래 사업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통업계 CEO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와 변화를 주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노브랜드'와 '뽀에로썬핑' 등 새로운 시도에 앞장서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구조혁신을 통해 초저가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CEO도 많았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초격차 역량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문하며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네슬레(식품), DHL(물류), 디즈니(엔터테인먼트)"라고 강조했다.

뷰티업계 라이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각 '변화'와 '사업 고도화'를 신년 화두로 던졌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변화를 즐기며 혁신을 이루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고,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 육성해 시장을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유진 기자 eugene@  
남주현 기자 jooh@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젊은 총수' 4인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 4대 그룹 총수와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빠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경제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8년에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만큼, 올해는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해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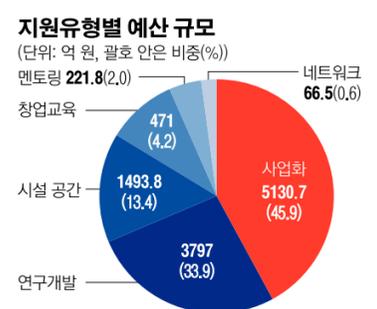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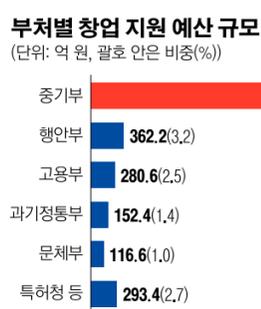
## 정부, 올 창업 지원 1조1000억 투입

작년보다 43% 증가...참여부처 2배 창업 사업화 46%·R&D 34% 차지

정부가 올해 창업 지원에 1조118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에서 총 1조 118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7796억 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 부처는 작년(7개) 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 사업 수도 60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부처별 사업 규모는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3.2%(362억 원), 고용노동부 2.5%(280억 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1.4%(152억 원) 등의 순이다.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13.4%), 창업 교육(4.2%)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촉진·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등이 추진된다.

각 부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신년기획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코리아'

##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4~5면

〈금융위원장〉

# 최종구 “자본시장 비상계획 지속 보완… 위기 선제 대응”

##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소액 공모·사모펀드 개편 등  
중소 성장자금 조달 지원 노력  
코스닥 상장·퇴출 요건 정비  
투자산업 규제 전반 재설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자본시장의 단계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시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감으로써 시장 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개장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권원원 금융투자협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김근호 코넥스협회장.

그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 안정을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사

모펀드 개편 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코스닥시장이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입·상장 유지 및 퇴출 요건을 정비하겠다”면서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싶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규제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회계제도 개혁법과 기업재무구조공시기본법으로 시행되는 첫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법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정지원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유니콘 기업 육성 총력”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본시장 재도약의 견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시장인 코스닥시장의 역할

## “고객 맞춤형 인덱스 상품 확대 미래 먹거리 발굴로 혁신성장”

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성장, 신기술 등 혁신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으로 커 나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적극 발굴하겠

다”며 “코넥스시장도 수요 기반 확충, 코스닥 이전상장 촉진 등을 통해 Pre-KOSDAQ 인큐베이션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시장 조성자 제도의 적용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시장 조성자로 유치해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며 “상장 이후에 성장이 가능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자본시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상장 제

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상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북과 온라인 자가진단 모델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중앙청산소(CCP)의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CCP 리스크 관리 제도를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밀착 감시해 선

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고객 맞춤형 인덱스 출시를 확대하고 분석 정보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 및 인덱스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이 자본시장 참가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의 시장 시스템 접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미 진출한 국가를 기반으로 아세안 자본시장과 연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설립과 관련해 여건이 성숙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유한양행**  
광고심의의뢰: 2018-1465-0004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약품 부작용을 생략하 않습니다. ■유한양행 소비자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안에서는,  
**육체피로!**

밖에서는,  
**눈의피로!**

**피로회복의 더블효과**  
온 가족이 느껴보세요!

**베콤씨<sup>®</sup>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 기존 정책 유지 속 대기업·중기 '상생 분위기' 띄우기

##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회

민간기업 투자로 경제활력 찾겠다  
4대 그룹 총수 초청 '기업 기상리기'

지지충 이탈, 국정동력 상실 우려  
'민생·경제에 올인' 절박함 묻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 메시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기존 정책의 유지와 기업 '기 살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제'와 '기업'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경제 부진이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해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1위에 올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으로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기업 행보로 비쳐질 수 있는 '우측 깜빡이'를 권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특별히 경제인을 많이 모셨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 등 상당 시간을 기업 얘기에 할애했다. 더이상 '대기업 때리기'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뤄 경제 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대기업 대표와 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른바 자기반성이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경제 부진으로 지지충 이탈이 빨라지면서 지난해 말 데드크로스(지지율조사서 부정기 긍정을 앞선 결과)가 나타나자 더 이상 방치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감도 묻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초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토로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혁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기업에 손을 내민 것이다.

이날 신년회를 사상 처음 청와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점이나 이례적으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지난해보다 두드러지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경제기초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에 속도조절 등 일부 변화는 가능하지만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 중국 경제 동향 (단위: %)



## CNN “중 경제, 올해 더 악화”

“부채 폭탄·증시 급락 등 불확실성 급증... 주변국들도 연쇄타격 우려”

한때 세계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중국 경제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은 지난해 험겨운 한 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올해는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최근 분석했다.

CNN은 중국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급격한 팽창의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며, 올해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가장 중한 고질병은 심각한 부채 수준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에 올라섰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부실 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42%에서 2018년에는 253.1%로 늘어났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낸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를 둔화시키는 주된 요인들은 아직 경제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것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은 문제가 전 세계 시장과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아이

폰에서부터 노트북, 불도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중국을 거쳐간다. 또 중국은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와 스마트폰, 맥주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 제너럴모터스(GM),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엔진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6월에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하락률은 25%에 달했다. 이 여파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확실성은 새해에도 여전하다. CNN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더 침체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작년에 본격화한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2019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문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양국은 2월 말까지 전쟁을 유예한 상황. 이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관세율이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향후 수개월 안에 중국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 및 기업 실적에도 적신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HANYANG CYBER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TECHNOLOGY

# 한양이 혁신하는 4차산업 공학교육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한양사이버대학교 공학계열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융합공학과 /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해킹보안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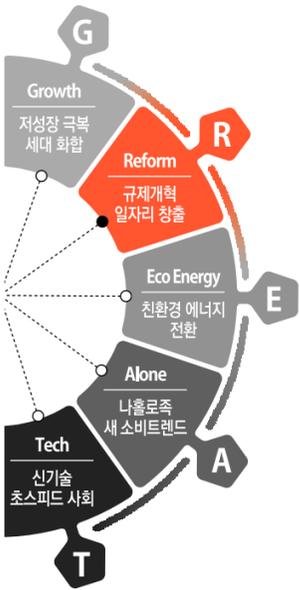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2018 정보공시 기준 16,569명)**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2018. 12. 1(토) ~ 2019. 1. 11(금)

●문의 전화 : 02-2290-0082 ●홈페이지 : go.hycu.ac.kr

# 힘껏 뛰어올라도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넘을 수 없는 규제의 벽〉



## 규제 풀어야 투자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바람은 규제 완화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각종 문턱을 낮추며 혁신 성장을 외쳤지만, 정작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있다. 반(反)시장 정서 탓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 할부, 포인트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애먼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선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속출  
자영업자·중소, 인건비 줄이려 직원 해고  
소상공인 달래려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카드사 연간 7000억 순손실 떠안을 판  
정부 직접 가격통제로 시장 기능 왜곡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 힘 실어줘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생태계 곳곳에서 경고음 = 문 정부 1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잘 살려면, 잘 벌어야 한다'는 철학은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곤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P)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었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들의 평균 월 급여는 89만 원에서 1만 원 깎였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한 것이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정할 순 없지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고자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였고 급여까지 연쇄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현상은 카드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떨어졌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는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가 선택한 방법은 구조조정이다. 지난해 12월 현대카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타사들도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이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1만1649명이었다. 2017년 상반기(1만1874명)보다 225명 줄었다. 2015년(1만3115명)과 비교하면 146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명식 상명대 교수는 "직접적 가격 통제로 정부

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만 방점을 찍다 보니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정책 균형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30% "투자 나설 테니 규제 풀어 달라" = 세밀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1000대 기업(176곳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절반(51.1%) 이상이 '기해년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슷할 것만 응답률은 44.3%였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은 4.6%에 그쳤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10곳 중 3곳(30.2%)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다.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임금 안정화'(26.1%)와 '환율 및 금리 안정화'(21.6%)에 중점을 두어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임금 안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우려스럽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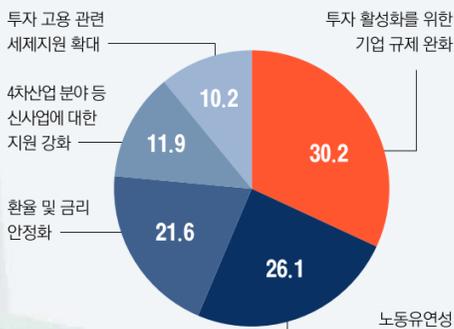
이런 목소리를 의식하듯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력 제고'를 꺼내들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과 대형 민간투자 사업 발굴·조기 지원, 광역형 대표 공공프로젝트에 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 주력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키로 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2019년 기업활력 제고 선거 과제는

(단위: %)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176개 기업 설문 응답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카드수수료율과 임직원 수 변화

기준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카드수수료율(%)	중소가맹점 2.7 영세가맹점 1.5	2 1.5	1.3 0.8	1.3 0.8
가맹점수수료수익(억 원)	2조4429	2조8815	2조8845	2조9671
임직원 수(명)	3만6647	3만16183	3만14169	3만14794

※출처: 금융감독원

## 춤춤한 규제에 脫한국... 6만km 무사고 자율車 결국 미국으로

〈시험주행〉

'스누버' 운전자, 美유통사와 택배 협약  
자율주행 기술 있어도 허가 첩첩산중  
수소전기차도 충전소 설치기준에 발목

2017년 6월 서승우 서울대 교수(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장)와 그의 연구팀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가 서울 여의도 일대를 누볐다. 도심에서 6만km가 넘는 무사고 시험주행을 마친 차였다. 스누버는 먼 미래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던 자율주행차를 우리 앞에 성큼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우리 곁에 스누버는 없다. 운전자인 벤처기업 '도드라이버'가 지난해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유통기업과 자율주행 택배서비스 협약을 맺은 것. 우리의 춤춤한 규제가 우리 손으로 개발한 새 기술을 해외로 견어잔 셈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2025년에는 관련 시장이 우리



서울대 서승우 교수팀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서울 여의도 도심을 달리고 있다.

뉴스스

돈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2035년이면 굴러다니는 차의 25%는 자율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이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다. 다행스럽게도 IT와 통신 강국 대한민국은 모자람이 없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유럽을 앞서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다.

그러나 정작 우리 연구자들은 시험주행조차 마음

편히 못하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며 세상이 흥분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나 법적, 제도적 개선은 더디 진행 중이다.

첨단 자율주행기술을 지녔어도 대기업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기준도 문제다. 스타트업이 획기적인 자율차 기술을 어렵게 뛰어넘어 대기업 수준의 제작안전 기준을 맞춰야 하고 △교통사고 때 책임 △사고 때 보험 △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풀어야 할 이슈가 산더미다. 예컨대 이미 팔리고 있는 일반 양산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얹어도 제작안전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자율차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장점을 강조해온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수소충전소는 설치기준에 발이 묶여 있었다. 서울시내에서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고작 2곳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서울에 있는 숙련된 외과의사가 로봇수술로 재난현장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선 먼 나라 이야기다. 원격의료 금지 탓이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관련 규제를 서둘러 풀고, 원활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투자자들도 기술 가능성을 높이 사 신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이 땅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속속 발길을 돌리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규제를 걷어내야 할 시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기업의 창의·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 경영환경 개선 해법은

새해가 밝았지만 기업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규제 리스크'까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경제활력 제고'에 맞추겠다고 기업투자 지원, 공영경제 활성화, 4대 주력산업 집중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규제 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기업의 창의·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공화국' 오명 여전... 기업 발목 잡는 규제들 '산적' = 정부는 '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활동에 개입해 기업·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는 시장 실패 치유와 배분적 정의 실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장 투명성·기업 예측 가능성 조화 이루도록 디테일 묘 살려야”  
규제 개혁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혁신성장은 생존의 문제  
정부 경제활력 방안에 기업들 시큰둥 “일할 환경부터 조성음”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 가능
전자투표제	일정 규모(혹은 일정 주주 수) 이상 상장사는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장사에 대해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 완화 또는 폐지

그러나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고 호소한다. 정부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약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의 선순

환 구조 마련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도 "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우려... 기업들 "일할 환경 만들어 달라" =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다·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안의 경우 정부가 근로 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에서는 공평성·객관성·확정성 등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되고, 경영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제화하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역시 논란이 크다.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법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 "규제 개혁은 생존의 문제"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규제집행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뿐만 아니라 회피비용을 유발, 국민 경제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세계 각국이 기업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및 혁신 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정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 향방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살렸나



## 아베노믹스, 경기부양·구조개혁 주력 기업·증시 살아나고 취업률 사상 최고

비금융 상장사 순이익 5년새 3배 ↑  
토픽스지수 6년새 115% '껑충'  
최대 호황기 속 소득향상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81만 명 일자리 창출 등 '제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정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등 역풍을 불러왔다.

이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종식한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장기 경기둔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증시도 살아나면서 고용시장도 수십 년 만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제이노믹스의전매특허로 여겨지지만 사실 내수를 살려 국민소득을 향상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다.

아베노믹스와 제이노믹스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핵심 요소로 전문가들은 성장 전략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한국 역대 보수 정권이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지향하지만 제이노믹스는 성장보다 분배,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새로운 성장 전략이 보이

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베노믹스는 먼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쳐 기업과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시키고 나서 임금 인상과 근로 문화 혁신 등 개혁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은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화살은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양적 완화),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 확대, 마지막 화살은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는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시장 호황으로 이어졌다.

일본증시 벤치마크인 토픽스지수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15% 상승했다. 일본 비금융 상장사의 총순이익은 2017년에 전년 대비 30% 늘어난 28조7800억 엔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으며 5년간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의 지난해 5월 실업률은 2.2%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도 남 얘기다. 지난해 봄 졸업한 대학생들은 같은 해 4월 1일 시점에 취업률이 98.0%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호황은 자연스럽게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의 파타임 시급은 1047엔(약 1만416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임금 상승률은 2.41%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생명

DB캐피탈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기분 좋은 일입니다  
”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 반도체·석유화학 부진 탓 수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12월 수출 485억 달러 1.2%↓... 수출액 8개월 만에 500억 달러 붕괴  
반도체 D램 가격 8.3% 하락... 코트라 "반도체 수출 19.5P 감소 전망"

지난달 우리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올해 수출 둔화세를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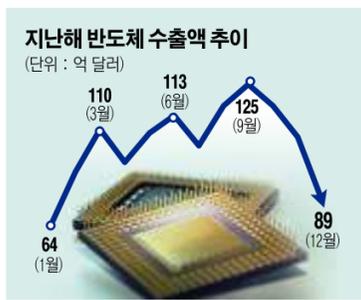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48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줄었다.

이는 작년 9월(-8.2%) 이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액도 8개월 만에 5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 5월 507억 달러를 기록한 수출액은

11월까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수출이 준 것은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89억 달러)이 핵심 품목인 D램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년에 비해 8.3% 감소해서다. 반도체 수출 감소(전년 대비)는 지난해가 처음이며 수출액은 8개월 만에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성장을 견인해온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 역시 전체 수출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달 석유화학 수출액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6.2%

줄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코트라는 올해 1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 분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52.1로 1분기 수출 증가세가 작년 4분기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선행지수는 해외 바이어, 주대 상사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예측한 지수다.

코트라 측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가 능성으로 북미와 중국 지역 지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했고,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

실성으로 유럽 지역 지수 또한 하락해 주요 수출국으로의 증가율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트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분기 대비 대폭 감소(수출선행지수 19.5포인트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상태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수출은 집중도가 높은 반도체가 꺾이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반도체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반도체의 자체 경쟁력은 더욱 키우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기재부, 신재민씨 비밀누설 혐의 檢 고발 신씨 "차영환 비서관, 적자국채 관련 지시"

신씨, 기자회견 열어 재반박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5급)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둘러싼 기재부와 신 씨 간 진실 공방이 접입경이다. 신 씨의 거듭된 의혹 제기엔 기재부가 연일 반박 자료를 내자 신 씨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국채 관련 기재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씨는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고파스)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압력설과 서울신문 및 KT&G 사장 인사 개입설을 제기했다. 신 씨의 주장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기재부 2차관이 나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씨는 1일 적자국채 관련 청와대 개입설의 근거로 당시 기재부 차관보(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기재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 방침을 밝히자, 신 씨는 이날 새벽 추가 유튜브 동영상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재부는 예정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및

사용) 위반이다.

논란 초기엔 신 씨의 주장을 기재부가 반박하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갔으나, 현재는 양쪽의 초점이 다르다. 기재부는 신 씨가 타 부서의 대외비 자료인 KT&G 동향 보고 문건을 편취해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고, 신 씨는 적자국채 발행이 취소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신 씨는 이날 국제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이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내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걸린 시점 1시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사 몇몇 사람에게 연락을 돌려서 '기사 지금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청와대 측 연락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신 씨는 기재부의 고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주열 총재 "연준, 韓 통화정책에 큰 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은 연준의 금리인상 보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물가는 유가가 떨어져 지난해(10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나도 김 위원장과 만남 고대"

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를 다른 국가에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PBS가 보도했다. 나 또한 김 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첫 반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



와 압력이 계속되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경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력이 계속되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실용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이 신뢰할 만한 수단과 상응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면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훌륭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사양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산안법 전부 개정안  
원청 책임범위 확대

내년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브리핑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지만,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6646명 중 1402명(21%)이다. 이 중 재범 이상은 943(14%)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사망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전남 진도 투자선도지구 선정 92억 지원 지역성장 거점으로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3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국비 92억 원 등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명레저산업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508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전략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가 면제되고 낙후 지역일 경우 최대 100억 원의 재정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가 6번째 투자선도지구다.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대명레저산업이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육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2년까지 호텔·콘도, 진도전통문화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진도대명리조트 관광단지는 2017년 4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공공입찰 가점 기준 변경

일자리 으뜸 기업에 2점 부여

청년·女·장애인 고용 기업 1.5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입찰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가점을 1.5점으로 높인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평가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증가율과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게만 가점 2점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1점을 감점한다.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고객 입찰 대상 기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넓힌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시행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했다"며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열정가득 청년의 꿈,

#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 [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룬다 ]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압박하는 트럼프 보란 듯 美 업계, 약값 ‘기습인상’

새해 벽두부터 평균 6.3% 올려

미국 제약업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최소 36개 이상의 제약업체들이 1일(현지시간) 수백 종에 달하는 약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으며 인상률은 평균 6.3%에 이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헬스케어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RX세이빙스솔루션스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예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지만 일부 약품 가격은 크게 뛰었으며 그중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미국 처방전 약품시장에서 90% 비중을 차지하는 복제약들도 포함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 약값 인상률은 미국의 물가상승률도 계속 웃돌고 있다.

엘러간은 51종의 약값을 인상했으며 그 가운데 27개 약품 가격은 평균 9.5%, 나머지 24종은 약 4.9% 올렸다고 확인했다. 이는 엘러간의 약품 포트폴리오 중 절반이 넘는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멘다와 안구 건조증 약인 레스타시스 등이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복제약 전문업체 히크마제약은 진통제인 모르핀 가격을 10%, 마취용 케타민은 20%, 혈압약은 30% 각각 인상했다.

히크마의 스티브 와이스 대변인은 “세 약품 모두 금액상으로는 한 병당 인상폭이 1달러 미만이며 그중 모르핀은 20센트 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런 작은 인상을 통해 병원과 의사,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약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36종의 약품 가격을 올렸지만 인상폭은 3%를 넘지 않는다.

제약업체들의 새해 약값 책정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제약업체들의 기습적인 새해 약값 인상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높은 약값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화이자사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일부 약값 인상을 취소했다. 그러나 화이자사는 이달 말 전체 취급 약품의 10%에 달하는 41종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제약업체들은 병원이나 의사 등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으로 약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약값 인상은 제품에 표시되는 정가에 반영되지만 할인이나 보험금 지급 등으로 환자들은 부담을 거의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시진핑 “자본유출 금지” 불호령에 ‘해외 땅투기’ 접는 차이나머니

중 정부, 위안화 안정에 초점 글로벌 부동산 매각 추세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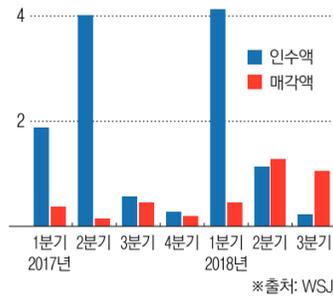
중국 투자자들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발빠기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 수년간 중국의 거대 자본 유입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지 큰손들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을 앞다퉈 매각했으며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리얼캐피탈엔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과 기타 기관투자자들은 지난해 3분기 유럽 호텔과 사무용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총 2억3330만 달러(약 2600억 원) 매각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10억5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치웠으며 사들인 규모는 2억31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큰손들은 지난해 2분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각액이 인수액보다 더 컸으며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경기둔화

중국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인수와 매각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여파로 5.7%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올해 끝나지 않으면 위안화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도 중국 큰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금리 상승으로 장기간 호황이었던 미국과 유럽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규모가 커 구매자들이 레버리지(부채)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에 민감하다. 또 금리가 오르면 기관투자자들은 자금을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그린스트리트어드바이저스는 “새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장에 일부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 큰손들은 미국과 유럽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영국 런던과 기타 주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중국의 빈자리도 채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명 빌딩들을 기록적인 가격으로 사들여왔기 때문에 이들의 후퇴는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제임스 셰퍼드 중국 리서치 대표는 “중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중국 투자자 대부분이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보험업체 약사와 중국 국영 징코트리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의 한화생명 등 컨소시엄은 지난해 영국 런던의 린메이커팰리스 빌딩을 매각했다.

2015년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를 미국 호텔 인수 사상 최고가인 19억5000만 달러에 사들였던 중국 안방보험은 현재 미국 호텔 자산 일부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매각 대상에 월도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 AP연합뉴스

### ‘G2 불똥’ 튼 빌 게이츠 중국과 원전협력 좌초

미·중 통상 갈등의 불똥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게도 튀었다. 게이츠가 회장으로 있는 미국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가 중국과 추진하던 차세대 원전 신기술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라파워가 2015년부터 중국 국영 원전업체인 중국핵공업집단(CNNC)과 추진하던 ‘진행파 원자로(TWR·traveling-wave reactor)’ 기술개발 사업에서 파트너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진행파 원자로 기술은 열화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기존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전력을 생산하는 신기술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테라파워는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자 해외로 눈을 돌려 CNNC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 기술을 처음 적용할 시험원자로를 중국 장저우에 건설기로 합의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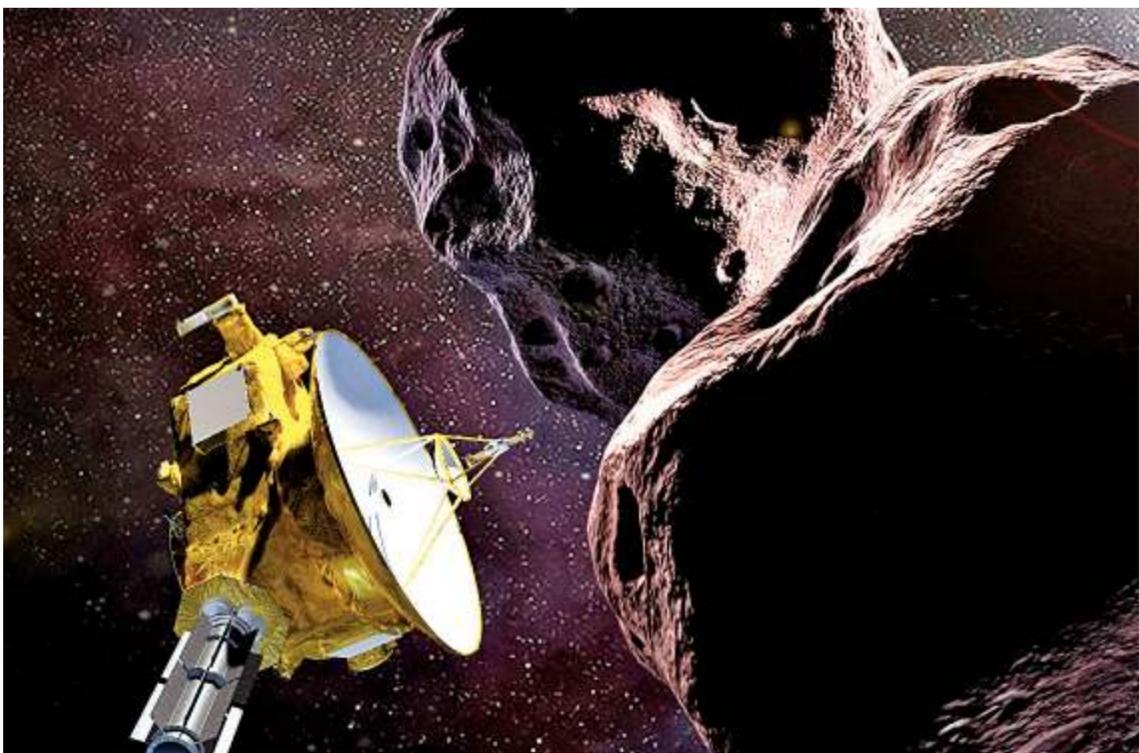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 10월 미 에너지부는 해당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 부 장관은 미·중 간 원전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중국이 새로운 원전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우려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테라파워의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CNNC 측과 중국에 건설하기로 한 시험원자로 건설에는 약 10억 달러(약 1조 1160억 원)가 소요된다. WSJ는 테라파워가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파트너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시험용 원자로를 미국 내에 건설할 수도 있지만 기존 규제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진보한 원전은 세계 기후변화를 멈추는 해법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뉴허라이즌스, 태양계 끝에서 새해맞이

미국 우주선 뉴허라이즌스호가 1일(현지시간) 0시 33분에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근접 비행했다. 이는 인류 우주탐사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간 것이다. 사진은 뉴허라이즌스가 지난해 11월 7일 울티마 툴레 주위를 근접 비행하는 상상도. NASA 웹사이트

## ‘셋다운 출구’ 찾는 트럼프 “장벽 브리핑하겠다”

초당적 협상 제안... 민주당, ‘장벽예산 미포함’ 패키지 지출법안 고수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일(현지시간)로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벽 보안 문제에 대한 ‘초당적 브리핑’을 진행키로 해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의회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원내 지도부를 2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회동은 백악관 집무동(웨스트윙)에서 열리며 멕시코 장벽 관련 공식 협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상·하원 원내대표들이 초청에 응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브리핑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셋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협상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셋다운 사태가 해가 바뀌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민주당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

이 교착 국면을 해소하려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는 국경 보안과 장벽 문제, 셋다운 상황 중에서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며 “합의를 해 볼까”라고 적었다.

펠로시는 새로 출범하는 하원 개원일인 3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

을 통째로 들어낸 민주당 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패키지 법안에서는 쟁점이 된 국토안보부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셋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내년 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단,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장벽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 예산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하지 않는 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출법안의 입법과정은 하원의장 선출이 유력시되는 펠로시가 이끄는 하원 민주당과 미치 매킨(켄터키) 원내대표가 이끄는 상원 공화당 간의 중대 전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운 기자 gamja@

# 리딩뱅크 수성 vs 탈환... '금융지주 빅2' 진검승부

## KB·신한 기해년 출사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새해 벽두 '리딩금융' 쟁탈전을 예고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일 전략적인 인수·합병(M&A)으로 1위 금융그룹 자리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년 연속 KB금융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하나의 신한(One Shinhan)'을 목표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전략적인 M&A를 추진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KB금융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1위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모바일 결제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예로 들며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높인 스타벅스 사례처럼 그룹 핵심 인프라와 프로세스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동남아와 선진국 시장 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전략적 M&A 통해 1위 금융그룹 자리 지킬 것"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하나의 신한" 목표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

### 윤 회장 "고객 맞춤 디지털 혁신 글로벌 시장 확대로 수익 창출"

트랙(Two-track) 전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KB금융은 현재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당기 순이익이 2조868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순이익이 3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2조6434억 원을 거둬들였다. 2017년과 지난해 모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 조 회장 "포트폴리오 강화 만전 여성리더 육성 등 인적 쇄신"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이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되찾은 1등 은행의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경쟁자와의 압도적인 격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회장은 리딩 금융그룹을 탈환하려는 각오를 다졌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현재 인수·합병 중인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강점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며 "하나의 신한'이라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특히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인재 중용, 외부 인재 수혈, 여성리더 육성 등 그룹 차원에서 쇄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그룹사 교차 발령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이날 "올해 우리의 전략 목표는 '관점의 대전환'"이라며 "많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맞서려 변화를 추진하지만 기존 시야를 벗어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 회장은 올해 금융산업을 어떻게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속에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며 "시중은행 간 차별성도 희석됐고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며 "위기를 맞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장 눈앞에 펼쳐있던 디지털 디바이스가 아닌 클라우드 시장으로 향했다"며 "넓은 시야와 과감한 결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선도기업으로 만들어 잊었던 영광을 되찾았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 우리은행, 아마존 손 잡고 3월 '위비핀테크랩' 개소

우리은행이 내년 3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과 협업을 통해 '위비핀테크랩' 2호점을 연다. 은행이 외국계 IT업체와 협업해 핀테크 기술개발 지원센터를 오픈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월 아마존과 협력해 여의도에 '위비핀테크랩'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오피스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공유, 기술교육 등을 제공한다. 다음 달 최소 2개 이상 업체를 선발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8월 영등포에 개소한 '위비핀테크랩'은 스타트업 창업 보육센터다. 현재까지 3기, 17개 업체를 발굴해 육성했다. 총 11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7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위비오토론 제휴(매너카), AI연계 여신평가 솔루션 개발(에이젠글로벌) 등 핀테크랩 육성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기존 '위비핀테크랩'이 스타트업 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사업화 지원'에 포커스를 뒀다면 2호점은 '서비스·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둔 개발지원센터다. 선발된 핀테크 업체는 우리은행 API(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적합한 기술은 우리은행 사업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고 공동 출시도 가능하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시장서 사라질 수도..." 비상경영 선포한 카드사

### 수수료 인하·금리 인상 등 계약재업체, 혁신 통한 위기 극복 주문

카드업계는 올해 경영 키워드를 '위기'로 규정했다. 지난해 불거진 카드수수료 인하나 새 결제수단 보급 확산,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인상 등 계약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는 울

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

2일 주요 카드사 대표는 신년사에서 일제히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임영진 대표는 이날 '위기의 카드사'라는 말을 인사말에서부터 꺼냈다. 임 대표는 "우리 업을 뒤흔드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위기의 카드사라는 수식에는 생소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외부 정책 변수와 다양한 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올해를 카드업계의 가

치관이 바뀌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조직과 결제시장 혁신을 당부했다.

KB국민카드 이동철 대표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대변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환경 변화는 우리가 보유한 핵심 경쟁력이 이제는 경쟁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카드업계 선두를 되찾기 위

한 사업 정교화와 신사업 전환 가속화, 조직 내 협업과 혁신 등을 주문했다.

롯데카드 김창권 대표 역시 "수수료 인하나 마케팅 비용 규제,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매우 비우호적이고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며 수익구조 다변화와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 등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이 레드오션으로 변했다"면서 "각종 페이의 등장으로 시장 위협도 커졌고, 수수료 인하나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카드업이 어려워졌는데 이를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 자금관리 |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시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 “위기 후 기회 온다…판 바꿀 준비하자”

### 산업계 CEO 신년화두 ‘극복’ “바람과 물결 헤쳐 뜻 이루라” “높이 나는 새, 명증되지 않아” 신사업 중심 기술 혁신 각오

산업계 CEO들이 2일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간다’는 의미의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새해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경기 하락과 글로벌 무역 전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연료전지 사업은 시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협동로봇,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본격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할 때”라며 “그룹의 신사업을 속도감 있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질박함과 간절한 마인드로 공격적 영업을 펼쳐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유율을 높여 가자”고 당부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역시 올해 국내외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 이후의 기회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



구광모 LG 경영 승계 후 첫 시무식 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그룹 새해모임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구 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사진제공 LG

다. 구 회장은 “침체가 지난 후에는 호황기가 오듯이 지금의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사이클 전환기에 대비해 판을 바꿀 만

한 충분한 역량과 강인한 기업 체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

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

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불기능에 도전해야 하며, 경쟁의 끝은 타임을 정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역시 차별화된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이 나는 새는 포수의 총에 명중되지 않는다”며 “차별화된 기술 확보로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은 “회사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가속하자”고 당부했고,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로 원가 절감에 집중하고 고객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회사 실적은 악화하고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명장 뽑고, 정년 없애…기술자 氣 살리기 나선 반도체업계

### 삼성전자, 제조·금형·계측 등 20년 근속기술자 명장제 도입 SK하이닉스 ‘장인’ 고용 보장

반도체 업계가 정년을 없애고, 명장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 임직원의 기(氣)를 살려주는 인재경영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IT 현장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최고 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해 ‘삼성명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가 특히 요구되는 제조기술·금형·계측·설비·품질 등의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를 겸비한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삼성명장’은 △공임없는 자기 혁신의 자세로 최고 수준의 전문 역량과 고도화된 기술 보유 △후배 양성에 대한 꾸준한 노력 △경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날 삼성전자에는 ‘삼성명장’ 4명을 처음 선정했다. ‘제조기술’ 부문에 선정된 생활가전사업부 이철 명장(54세)은 1989년 입사해 24년간 제조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며 인쇄회로기판(PBA) 제조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금형’ 부문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기술센터 이종원 명장(57세)은 1993년 입



2일 경기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성명장’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계측 부문 박상훈 명장, 설비 부문 홍성복 명장,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금형 부문 이종원 명장, 제조기술 부문 이철 명장. 연합뉴스

사 이래 25년간 금형 분야에서 일한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이다. 이 명장은 와인잔 모양을 형상화한 보드 TV, 갤럭시 S6 메탈 케이스 등 새로운 제품 디자인의 금형을 개발해 삼성전자 주요 제품이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는데 일조했다.

‘계측’ 부문에서 뽑힌 파운드리사업부 박상훈 명장(51세)은 1993년 입사해 25년 동안 반도체 데이터 분석(불량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반도체 수율 향상을 주도해 왔다.

‘설비’ 부문에서 선정된 TSP(Test & System Package)총괄 홍성복 명장(51세)은 1984년에 입사해 34년간 반도체 조립설비 업무에 종사하면서 반도체 후 공정 설비 구조개선을 통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기술력이 높은 엔지니어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들은 정년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개발·제조·분석 등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 제도 도입으로 오랫동안 회사 성장에 기여한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정년을 넘어서도 회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개개인은 물론 회사의 기술 역량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한국지엠 R&D법인 공식 출범

### 엔지니어링·디자인 부문 직원 3000명 소속 변경

한국지엠에서 분리된 연구개발(R&D) 신설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2일 신설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한국지엠 전체 인원 1만3000여 명 가운데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부문 인력 3000여 명이 신설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한국지엠 생산직과 사무직을 비롯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직원 대부분이 이번 주까지 휴가이기 때문에 시무식이나 경영진 신년 인사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식 등 공식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이날 공식 운영에 들어갔지만 직원들 휴가가 끝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조직개편만 있을 뿐 사무실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직원들이 체감하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車업계 지난해 판매 목표 줄줄이 미달

### 무역분쟁 등 해외 부진 영향 현대기아차도 15만 대 부족

글로벌 산업 수요 감소 및 주력 시장의 무역분쟁에 시달렸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755만 대 판매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른 완성차 메이커 역시 수출 시장에서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와 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458만6775대와 281만2200대를 판매해 총 739만8975대를 기록했다. 애초 판매 목표 755만 대에 약 15만 대가 모자란 수치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총 72만1078대의 차량을 팔아 2017년 대비 4.7% 늘었다. 다만 해외시장에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386만5697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기아차 역시 국내 53만1700대, 해외 228만500대 등 전년 대비 2.4% 증가한 281만2200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7년 대비 국내 판매 1.9%, 해외 판매는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판매 목표를 755만 대로 잡았다. 글로벌 산업 수요 감소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토종 브랜드 약진 등이 맞물린 탓에 판매 목표치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목표치에 소폭 못 미쳤다. 중동 정세 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해외시장에서 돌발 변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713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700만 대 고지에 처음 올라섰다. 이후 2014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800만 대 고지에 올라섰지만 이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산업 수요 감

소 및 SUV 중심의 시장 재편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소폭 상승한 760만 대로 잡았다. 이밖에 글로벌 권역본부 출범과 함께 해외시장 판매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내 완성차 메이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북 군산공장 폐쇄와 R&D 법인분리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한국지엠은 지난해 총 46만2871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국내 소비자들이 외면한 탓에 내수는 9만3317대에 머물렀다. 수출 역시 중동 정세 변화, 생산 차질 등에 휘말려 36만9554대에 그쳤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지난해 부침이 심

했다. 내수 판매 9만369대, 수출 13만7208대로 총 22만7577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내수 판매는 2017년보다 10.1% 감소했고 수출은 주력 판매지역의 정치경제적 여파 탓에 22%나 줄었다.

쌍용차는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10만9140대, CKD를 포함한 수출은 3만4169대를 기록해 총 14만3309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가 국내에서만 4만2000대가 넘는 실적을 올리며 내수 3위 굳히기를 견인했다. 해외 수출은 호주 법인 신설 등 신흥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전반적 글로벌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일 을지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2일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하현희 LGU+ 부회장이 2일 용산사육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 과제를 밝히고 있다.

# “5G 경쟁 양보없다”... 신년사 목소리 높인 통신 수장들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3월 상용화를 앞둔 5G에 대한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4G LTE보다 수십 배 빠른 5G 품질경쟁에서 1등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사업을 통해 종합 ICT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일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그룹의 ICT 계열사가 참여한 신년회에서 “올해는 5G와 AI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해”라며 “이전과 다른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ICT 생태계를 선도하는 강한 기업이 되자”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업(業)의 경쟁자와 겨루기 위해 더욱 강한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박정호 SKT 사장 “5G·AI 가시적 성과... 종합ICT 기업 발돋움”**  
**황창규 KT 회장 “속도경쟁 압승...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으로”**  
**하현희 LGU+ 부회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5G 혁신 주도”**

말했다. 이를 위해 전자 조직과 SK ICT 계열사, 국내외 선도 ICT 기업과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ICT 새판 짜기’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통신(MNO) 사업부에 ‘착하고 강한 MNO’, 미디어 사업에서는 인터넷TV(IPTV)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 등이 5G 시대의 킬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보안사업은 5G 시대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ADT캡스, SK인포섹,

IDQ 등 물리·정보보안에서 양자암호통신까지 보안사업 역량을 결합해 융합보안 시대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황창규 KT 회장이 5G 속도에서 압도적인 1등과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자고 주문했다.

황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역량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인식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달성해야 한다”며 “기업 전용 5G 등을 통해 기업 인프라를 5G로 전환시키고 통합 오피

링, 에지 클라우드(Edge Cloud) 등 KT만의 강점을 살려 초기부터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1등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하지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자산을 고객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한다”며 “5G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을 더한 ‘지능형 네트워크’와 에너지, 보안 등 KT의 플랫폼 역량을 융합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기존 시장의 틀을 깨고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하 부회장은 “전통적 통신사업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5G 혁신을 주도하자고” 강

조했다. 이어 “5G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5G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만들어 고객 일상에 변화를 일으키자”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LG유플러스가 견실하게 성장을 지속해 가려면 전통적 통신사업 관점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다섯 가지 과제는 △무선과 유선 사업에서 근본적 경쟁력 강화 △5G 성공적 투자 및 상용화로 통신사업 변화와 혁신 주도 △미래 성장동력 기반인 홈 IoT와 AI 사업 성공 △품질, 안전, 보안의 철저한 관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화합적 조직문화와 노경문화 조성 등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콘텐츠 전문 경영인’ 김성수 신임대표 취임

# 카카오M,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강화

영상콘텐츠 장르 다양화  
BH엔터 등 인수 마무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강자로 법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카카오M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를 비롯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에 한류를 전파하는 K-콘텐츠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습관이 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형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유통에 용이한 웹메이드 쇼트폼(Short-form) 콘텐츠 제작 사업을 강화한다. 기존에 크리스피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선보였던 웹드라마, 웹예능에 더해, 2019년에는 더욱 다양한 장르, 다수의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이며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M에서 제작된 양질의 콘텐츠는 카카오가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양사 간 시너지로 카카오 공동체의 콘텐츠 시장 내 입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M은 영상 콘텐츠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투자를 진행했던 △BH엔터테인먼트(이병현, 한효주, 한지민, 김고은 등) △제이와이드 컴퍼니(김태리, 이상윤, 최다니엘 등) △슈 엔터테인먼트(공유, 공효진, 전도연 등) 3개사와 국내 광고모델 캐스팅 1위 사업자인 레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카카오M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킴콩 바이 스타쉽(유연석, 이광수, 이동욱 등), E&T스토리 엔터테인먼트(김소현)에 더해 100여 명의 방대한 배우군을 확보하며 영상산업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최양하 한샘 회장 “고객 감동경영 펼친다”

“단골손님 50%에 도전...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 될 것”



최양하(사진) 한샘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 경영 방침을 밝히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올 한 해 매진해야 할 경영 방침으로 ‘고객 감동 경영체계 구축’, ‘미래 신성장 사업 개발’, ‘10조 경영시스템 구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고객 감동 경영체계 구축’을 밝히며 “단지 양품의 수준이 아니라 명품 수준으로 만들어 ‘역시 한샘 제품은 다르다’는 평가를 소비자에게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단골손님 50%에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의 신성장 사업 개발’을 위해선 “세계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인 견제 패키지 사업을 완성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5일 시공에 소비자 금융 지원, A/S 품질보증을 이룬다면 어느 업체도 따라오지 못하는 굳건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

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10조 경영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으로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사업본부별 책임경영체계를 갖춰 가고 전략기획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한샘이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였다면 앞으로의 한샘은 고객, 사원, 주주, 판매점, 협력회사, 관공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회사가 되겠다”며 “우리의 사명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미션인 ‘주거환경 부문 최강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빗썸·코인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인증 체계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가상화폐 업계가 보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안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KISA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주요 거래소들

의 보안 기관 인증이 완료됐다.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소 빅4’ 외에도 고팍스 ISMS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ISMS 인증은 기업이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KISA가 심사 후 기업 및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은 관리과정 5개 분야, 정보보호 대책 13개 분야, 인증기준 104개 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 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 中企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제1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다. 고용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구인 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2월 1일 확정 발표한다.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 8880+α)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 배정 대상은 8700명+α 규모다. 이후 신청 일정은 4·7·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국생산성본부 · 미시간대학 조사

#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최우수기업



##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Since 1998)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소개된 기업 및 대학 등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 및 대학 등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b>아파트</b> 21 years winner 1998~2018 삼성물산 來美安 레미안	<b>스마트폰</b> 7 years winner 2012~2018 14 years winner 1998~2011 미래부 장관 표창 SAMSUNG Galaxy	<b>이동전화 서비스</b> 21 years winner 1998~2018 SK 텔레콤	<b>우유/발효유</b> 21 years winner 1998~2018 한국야쿠르트
<b>백화점</b> 16 years winner 2003~2018 롯데백화점	<b>생명보험</b> 15 years winner 2004~2018 삼성생명 SAMSUNG	<b>세탁기</b> 13 years winner 2006~2018 LG TROMM	<b>에어컨</b> 13 years winner 2006~2018 LG WHISEN
<b>주유소</b> 10 years winner 2009~2018 GS칼텍스	<b>베이커리</b> 10 years winner 2009~2018 PARIS BAGUETTE	<b>패스트푸드</b> 8 years winner 2011~2018 롯데지알에스(주) 롯데리아	<b>대형마트</b> 8 years winner 2011~2018 롯데마트 easy & slow life
<b>담배</b> 7 years winner 2012~2018 KT&G	<b>음료</b> 6 years winner 2013~2018 롯데칠성음료	<b>전문대학</b> 6 years winner 2013~2018 영남이공대학교	<b>신용카드</b> 5 years winner 2014~2018 삼성카드 SAMSUNG
<b>중형승용차</b> 5 years winner 2014~2018 HYUNDAI	<b>경형승용차</b> 4 years winner 2015~2018 KIA	<b>렌터카</b> 4 years winner 2015~2018 롯데렌탈	<b>국제항공</b> 4 years winner 2015~2018 ASIANA AIRLINES
<b>RV</b> 3 years winner 2016~2018 KIA	<b>영화관</b> 3 years winner 2016~2018 롯데시네마	<b>김치냉장고</b> 3 years winner 2016~2018 LG DIOS 김치톡톡	<b>소주</b> 3 years winner 2016~2018 처음처럼 처음처럼
<b>헬스앤뷰티 전문점</b> 2 years winner 2017~2018 OLIVE YOUNG	<b>IPTV</b> 2 years winner 2017~2018 kt	<b>렌터카</b> 1 year winner SK 렌터카	<b>증권 금융상품매매</b> 1 year winner NH투자증권



### NCSI는 국가경쟁력 지표

- NCSI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 평가,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경쟁력 지표입니다.
-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조선일보와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 '18년 기준 조사 규모는 76개 산업, 325개 기업, 총 표본 수 88,209명입니다.

### NCSI는 Global Standard Index

- 미국 고객만족도 (ACSI) 발표 ('94~)
- ACSI, 미국 연방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모델 채택 ('99~)
- ACSI 모델 도입 국가
  -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 (EPSI)
  - 한국 (NCSI), 일본(JCSI), 싱가포르(CSISG) 등 아시아 주요국
  - 브라질 (BCSI), 콜롬비아(CIV) 등 남미 주요국

### NCSI는 국가경쟁력 지표

- Journal of Marketing 등 저명 학술지 발표를 통해 이론적 검증 완료('96)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 품질 지수 기본 모델로 채택 ('99)
- 공기업 고객만족도 측정, 평가 모델로 채택 ('99~'06)
- NCSI 1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NCSI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공헌도 입증 ('08)

<b>손해보험</b> 18 years winner 2001~2018 삼성화재 SAMSUNG	<b>대형승용차</b> 7 years winner 2012~2018 11 years winner 2001~2011 상용차 부문 최 HYUNDAI	<b>중대형승용차</b> 7 years winner 2012~2018 11 years winner 2001~2011 상용차 부문 최 HYUNDAI	<b>중형승용차</b> 7 years winner 2012~2018 11 years winner 2001~2011 상용차 부문 최 HYUNDAI
<b>RV</b> 13 years winner 2006~2018 HYUNDAI	<b>사립대학교</b> 12 years winner 2007~2018 성균관대학교	<b>택배</b> 12 years winner 2007~2018 우체국 택배	<b>신용카드</b> 11 years winner 2008~2018 비씨카드
<b>병원</b> 8 years winner 2011~2018 세브란스 SEVERANCE	<b>IPTV</b> 8 years winner 2011~2018 SK 브로드밴드	<b>초고속인터넷</b> 8 years winner 2011~2018 SK 브로드밴드	<b>냉장고</b> 7 years winner 2012~2018 LG DIOS
<b>국제전화</b> 5 years winner 2014~2018 SK 텔링크	<b>오픈마켓</b> 5 years winner 2014~2018 Gmarket	<b>국립대학교</b> 5 years winner 2014~2018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정수기</b> 5 years winner 2014~2018 COWAY
<b>제습기</b> 4 years winner 2015~2018 LG WHISEN 제습기	<b>은행</b> 4 years winner 2015~2018 KB 국민은행	<b>맥주</b> 4 years winner 2015~2018 kloud ORIGINAL GRAVITY	<b>소형승용차</b> 4 years winner 2015~2018 HYUNDAI
<b>면세점</b> 2 years winner 2017~2018 LOTTE DUTY FREE	<b>호텔</b> 2 years winner 2017~2018 LOTTE HOTELS	<b>은행</b> 2 years winner 2017~2018 신한은행	<b>TV홈쇼핑</b> 2 years winner 2017~2018 CJ 오쇼핑
<b>로봇청소기</b> 1 year winner LG 코드제로 R9 ThinQ	<b>공기청정기</b> 1 year winner LG PuriCare™ 공기청정기	<b>초고속인터넷</b> 1 year winner kt	<b>공기청정기</b> 1 year winner COWAY

\* 현재 10년 이상 연속 1위 기업 · 'years winner'연속 1위 기간 · 본 광고는 NCSI 76개 조사대상 산업의 1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광고입니다.

# 온라인쇼핑 月거래액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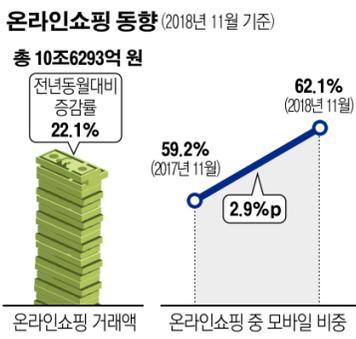
작년 11월 10.6兆 1년 새 22.1%↑  
모바일 비중 2.9%p 오르며 6.6兆

온라인 월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1%(1조9208억 원) 증가한 10조629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10월 기록(10조350억 원)을 갈아치웠다.

서비스와 식품, 가전, 패션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35.8% 증가한 2조2729억 원이었으며 특히 음식 서비스와 e쿠폰 서비스는 각각 70.9%, 79.4%나 늘어나 음식 관련 서비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식품은 31.0% 증가한 1조1647억 원, 가전은 22.7% 증가한 1조6877억 원, 패션은 12.3% 증가한 3조626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역대 최대치인 작년 10월 6조2285억 원을 경신했다.



작년 11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0%(1조4415억 원) 증가한 6조5967억 원을 기록했다. 모바일이 온라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월(59.2%)보다 2.9%포인트(P) 오른 62.1%였다. 서비스(48.6↑)와 도서(43.7%↑), 가전(35.0%↑), 식품(34.8%↑) 등이 급증했다.

통계청은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할인행사 및 미세먼지에 따른 가전 매출 증가, 가정간편식 선호, 음식 서비스 다양화 등을 꼽았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자몽** 롯데마트는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한 세계 각지의 자몽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선보이는 자몽은 '이스라엘 자몽·메로골드 자몽·스위티' 3종이다. '이스라엘 자몽'은 달콤하고 씹새로운 맛이 특징이다. '메로골드 자몽'은 일반 자몽보다 덜 쓰고 당도가 높으며, '스위티'는 겉껍질이 초록색을 띠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 셀트리온 '램시마SC' 특허 출원 19년간 90여 개국 독점권 기대

2037년까지 美·유럽·亞 등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독점권  
36兆 규모 종양괴사 억제제  
시장 진입해 선점 가능성도

셀트리온이 글로벌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시장 독점권 확보에 나선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자리매김한 셀트리온이 새해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제인 '램시마SC(CT-P13SC)' 제품 보호를 위한 글로벌 특허를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총 90여 개국에서 램시마SC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이 출원한 특허는 램시마SC 뿐 아니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벽 특허이다. 이번 특허가 등록되면 2037년 특허 만료일까지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 가운데 피하주사 제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휴미라'는 미국에서 다수의 특허로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램시마SC가 미국에 출시되면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분야에서는 유일한



TNF-α 억제제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로 '레미케이드'를 포함해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36조 원 이상의 TNF-α 억제제 시장까지 모두 침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엔브렐'의 특허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2023년, 2029년 이전 미국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가 이들 바이오시밀러 출시 전 미국에 진입한다면 휴미라·엔브렐 투여 환자도 램시마SC의 잠재적인 수요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투여 방식 변경 및 성능 개선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SC가 전 세계 매출 1위 블록버

터 휴미라를 넘어서는 바이오의약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7일부터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년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시장 공략 전략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11월, 허주마는 12월 각각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 허가를 획득했으며,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강력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침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남북평화' 소망 담아 백두산 물로 수제맥주

핸드앤몰트 '소원 페일 에일' 한정판... 화해 무드 北관련 식품 줄이어

## 간판 바꾼 '롯데百 인천터미널점' 오픈

독점 브랜드·해외명품 유치  
고객에 색다른 쇼핑 즐거움

인천터미널점이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4일 새롭게 문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인천 지역 쇼핑 메카인 인천터미널점이 장기간 문을 닫을 경우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파트너사의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대부분의 브랜드를 승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보수 작업이 필요한 식품 매장의 경우 약 4개월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 5월 선보인다.

푸드코트와 식품 매장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맛집인 '공화춘', 인천 송도의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일피노' 등 인천 지역 유명 맛집들이 입점하며, 의정부 부대찌개 맛집인 '오명식당' 등 전국 유명 맛집들도 들어선다.

의류 등 패션 매장의 경우 수입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 등을 대거 유치해 쇼핑의 다양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롯데 온리(Lotte Only)' 브랜드도 선보인다. 여성 수입 의류 PB인 '엘리든 플레이(ELIDENPLAY)', 남성 수입 의류 PB인 '엘리든 맨(ELIDEN MEN)', 스포츠 편집 매장인 '피트니스 스케이' 등 롯데만의 온서십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도입한다.

인천터미널점의 규모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부지면적 2만9223㎡(8840평), 전체면적 13만6955㎡(4만1429평), 영업면적 5만1867㎡(1만5690평)다.

인천터미널점은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4일부터 8일까지는 1층 행사장을 활용해 '오픈 축하 아우터 박람회'를 연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노스페이스화이트라벨' 등 총 1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대표적인 상품으로 '블랙야크 경량 다운'을 5만 원에, '블랙야크 롱다운'을 19만800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4일부터 13일까지 인천터미널점 방문 고객 중 엘포인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품 페스티벌도 마련해 삼성 에어드레서(5명)·LG트롬 건조기(5명)·밀레 식기세척기(5명)·다이슨 V10 카본 파이버 플러스(10명) 등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김선민 인천터미널 점장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향후 단계적 매장 개편을 통해 인천 및 경기 서부 상권 최고의 백화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전과 차별화한 매장을 구성해 방문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서 기자 only@

백두산 생수에 이어 백두산 맥주가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 등 남북 화해무드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의 제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백두산 맥주 역시 이 같은 화해 무드 확산의 산물이다.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수제 맥주 '소원 페일 에일'을 이달 말부터 한정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소원 페일 에일은 핸드앤몰트 설립자 부친과의 인연으로 탄생한 제품이다. 도정한 설립자는 평양이 고향인 부친의 오랜 소망이었던 남북 화합의 의미를 맥주에 담았다.

소원 페일 에일은 맥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에 남북 간의 화합 의미를 담았다. 서로 다른 남북이 만나 하나가 되듯 백두산의 물과 남한의 물을 더해 맥주를 완성한 것이다.

도정한 설립자는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맥주'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에게 남북 평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록 지금은 5·24 조치로 인해 중국을 통해 백두산의 물을 가져와 제품을 만들지만, 곧 직접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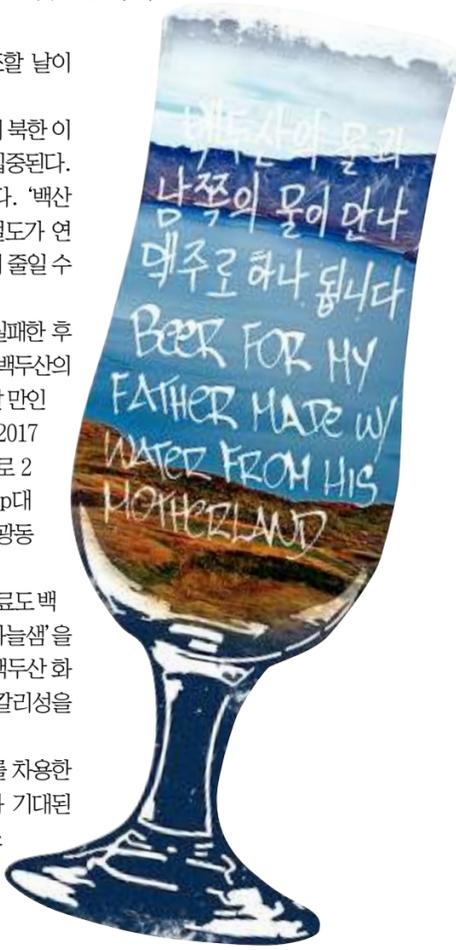
수한 북한의 샘물로 맥주를 양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화해무드 확산으로 종전에 북한 이미지를 담은 제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제품이 농심의 백산수다. '백산수'를 생산하는 농심은 북한과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심이 산다수 유통권 탈환에 실패한 후 절치부심 끝에 탄생시킨 백산수는 백두산의 정정한 이미지를 앞세워 출시 석달 만인 2013년 생수시장 3위에 올랐다. 2017년 기준 생수시장 점유율은 7.5%로 2위인 롯데칠성음료와의 차이는 3%p대로 좁혀졌다. 생수 1위 브랜드는 광동제약의 제주 삼다수(41.5%)다.

아이시스로 알려진 롯데칠성음료도 백두산을 수원지로 하는 '백두산 하늘샘'을 2012년 말 선보였다. 이 제품은 백두산 화산암반수를 활용한 것으로 약알칼리성을 띤다.

백두산뿐 아니라 북한 이미지를 차용한 제품들도 남북 관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의 양념불고기 소스 '사리원 불고기'와 평양물냉면, 오투기 '함흥비빔면' 등이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우발채무 9개월 만에 6兆 증가... '경고등' 커진 증권사

국내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금액이 9개월 만에 6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금액이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3조9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12월(2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6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며, 자기자본 대비 비중 63.7%에 달한다.

우발채무란 빚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채무를 말한다. 증권사들의 부동산금융 우발채무는 PF 대출의 보증을 선 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유동성 공여와 직접 PF 보증에 나서는 신용 공여로 구분된다. 신용공여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고 증권사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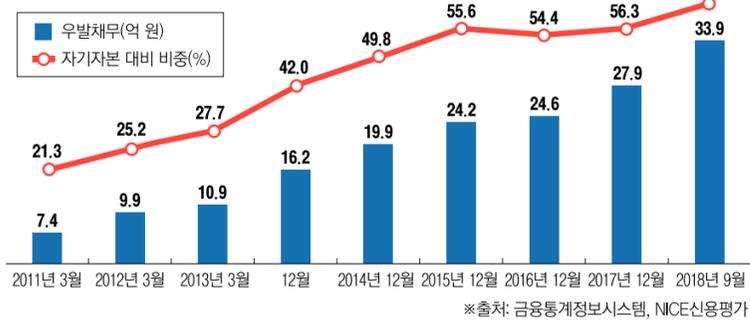
지난해 9월 기준 33조9000억 자기자본 대비 비중 64% 육박 대형사도 우발채무 비중 증가세 "자산건전성 직접적 악영향 우려"

종적으로 상환책임을 진다.

나신평 관계자는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79.2%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증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우발채무는 2012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당시 정부의 각종 부양 정책, 금리인하, 대출규제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PF권이 늘었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은 과거 대비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금액 추이



저하된 상황이었고, 증권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를 적극적으로 늘렸다. 이에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금액은 2015년 20조 원을 돌파한 후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다시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나신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했다. 이혁준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이전 대비 높아졌다"고 분석

했다.

특히 과거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금액 증가는 자기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형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대형증권사들도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전체 우발채무 중 대형증권사의 보유 비중은 2015년 말 37.5%에서 2018년 9월 말 48.7%까지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자본 완충력이 높은 대형사의 보유 비중 상승은 전체 증권업의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소로 판단됐지만 최근 대형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자본규모가 큰 증권사의 경우에도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와 유동성 압박이 재무안정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제이제이한라 '눈덩이 이자비용' 어찌나

기업회생절차 종료 후 재기에 나선 골프장 운영업체 제이제이한라가 모기업의 지원에도 이자비용 부담에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라그룹 계열사 한라는 최근 이사회에서 제이제이한라에 대여한 173억 원의 대여금 만기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제이제이한라는 1993년 제주도에 설립된 골프장 세인트포CC 운영사로 전신은 에니스다. 2013년 말까지만 해도 한라는 세인트포CC 개발사업자 에니스에의 지분 18.75%를 보유하고 있었다. 에니스는 당시 잇따른 적자에 원전자본잠식에 빠져 그해 제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라 역시 적자 누적에 어려움을 겪자 세인트포CC 매각을 추진했다.

한라그룹이 에니스 처리 방식을 180도 바꾼 것은 2016년이다. 세인트포CC 매각이 지연되고 한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한라그룹이 인수자로 나섰다. 부지 개발로 가치를 올린 후 매매각 방식

매년 이자비용 100억 이상 2017년 말 부채비율 1105% 일부 자본잠식 상태 빠져 한라, 대여금 만기 1년 연장

을 선택했다. 이에 한라홀딩스는 SPC(특수목적법인) 한라제주개발을 만들어 500억 원을 출자하는 한편 160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에니스를 인수했다. 한라홀딩스는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출로 재무부담이 커져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되기도 했다.

에니스는 이후에 사명을 현재의 제이제이한라로 바꿨고, 한라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다만 한라그룹의 기대와 달리 세인트포CC는 제주도 내 골프장 포화 등의 영향에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라그룹은 세인트포CC 경영정상화를 위해 골프장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바꿨지만 실적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이제이한라의 2017년 말 매출은 31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다. 골프텔 분양 수입이 더해진 영향이다. 그러나 영업손실 외에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10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에 손실이 지속하면서 2017년 말 기준 일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부채비율은 1105%에 달하며 이자비용 146억 원 중 92억 원이 한라홀딩스와 한라로 빠져나갔다. 작년 경영 성적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은 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50억 원보다 줄었다. 손실도 105억 원에 달한다.

세인트포CC 추가 사업이 한라홀딩스에 미칠 영향도 관심 거리다. 제이제이한라 인수로 한라홀딩스는 별도기준 순차입금이 2015년 말 3357억 원에서 2016년 말 4113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용등급 하락도 경험했다. 이에 신협사들은 세인트포 식물원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추가적인 신용공여 발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차량용 패스너' 확대로 성장 기대

### 기업탐방

#### 글로벌에스엠

전자기기 패스너 월 8억개 생산 세계 500개사 공급 점유율 1위 작년 3Q 영업익 9억 흑자 전환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볼트와 너트가 자동차와 항공기, 전자기기를 만들어낸다. 패스너(분리돼 있는 것을 잠그는 데 쓰는 부품들) 사업은 소홀해 보여도 국가산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

글로벌에스엠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용 패스너 부문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페인, 루마니아 등 각 나라의 주요 경제 요충지에 9곳의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월평균 약 8억 개의 패스너를 생산하며 전 세계 약 500개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용 패스너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친환경, 자율주행, 전자기자동차 시장이 주목을 받으며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스페인과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자동차용 패스너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법인 간 기술 교류

글로벌에스엠 추가 추이



를 강화하고 있다.

패스너 제품은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된다.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제조돼야 하기 때문에 단조, 열처리 등의 생산 공정상 기술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에스엠은 제한된 시간 내 대량 납품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61억 원, 9억 원을 기록하며 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부터 자동차용 패스너 부문 매출이 본격화되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대표는 "최근 미국 소재의 글로벌 패스너 전문기업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속적인 수주와 영업소 설립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밀한 기술력과 글로벌 법인을 활용해 자동차용 패스너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비츠로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실 지난달 뒤늦게 공시 한국거래소, 14일까지 불성실공시·벌점부과 여부 판단

비츠로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2015년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공시를 3년이 훌쩍 넘어서 시점에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비츠로시스는 지난달 17일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관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명백한 공정공시 위반이다.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까지 비츠로시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벌점이 15점 이상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관계자는 2일 "이번 유상증자 결정(12월 14일) 주권사인 IBK투자증권의 실사 중 상기 사항을 발견해 자진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공시를 못 했

다는 주장이다.

담합 제재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그해 1월 6개 교통 카메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단속 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비츠로시스, LS산전, 토페스, 건아정보기술, 하이테크시스템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공시했음에도 인지를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핵심 거래 대상인 관공 공사와 관련한 일인 만큼 해당 사안은 핵심 임직원의 주요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이 공시되지 않을 것)을 증거 관련 주권사가 실제 발견한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지난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5100조...40.3%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5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3월 말 잔액 기준 5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금감원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서 증거금은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증거금은 크게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위한 변동증거금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위한 개시증거금 등으로 나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올해 교환한 금융회사는 총 76곳으로, 은행(36곳), 보험(23곳), 증권(17곳) 순으로 많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월 2일 17:00, KST)

종류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변동률(%)
비트코인캐시	182,000	-100	(0.1%▼)
리플	405	5	(1.3%▲)
라이트코인	35,770	1,510	(4.4%▲)
대시	90,050	1,600	(1.8%▲)
모네로	54,600	3,000	(5.8%▲)
비트코인골드	14,390	80	(0.6%▲)
이더리움 클래식	5,875	105	(1.8%▲)
퀀텀	2,478	41	(1.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기업들 또 '올빼미 공시' 암체짓

연말 증시 폐장 후 공시 쏟아내  
퓨전데이터·네이처셀 계약 해지  
씨엔플러스는 중고폰 유통 중단

연말 주식시장 폐장 이후 매년 반복된  
올빼미 공시가 어김없이 재현됐다.

올빼미 공시는 약재성 내용을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 공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이다. 시장이 열리지 않는 연말 공백기에  
△계약 해지나 계약금액 변경 △사업계획  
연기 △주식담보 제공 △전환가액 하향 조  
정 등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이 열리지 않은 지난달 31일 퓨전데이터  
는 336억 원 규모의 필리핀 사물인터넷  
(IoT) 원격수도검침시스템 공급 계약이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최근 매  
출액 대비 136.08%에 달한다.

회사 측은 해지 사유로 "시험사업 종료

## 올빼미 공시

12월 28일

- 현대아산 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메디포스트 중국 합작사 지분 취득 예정일 1년 연기

12월 31일

- 퓨전데이터 필리핀 사물인터넷 원격수도검침시스템 공급 계약 해지
- 씨엔플러스 중고폰(에코폰) 유통사업 중단
- 네이처셀 세포가공물 중간공정 가공업무 위탁계약 해지

후 계약 상대방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  
품 발주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했지만 계약 상대방의 위반사항 시정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또 씨엔플러스는 사업 수익성 악화  
와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중고폰(에코폰)  
유통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네  
이처셀은 일본 JASC와 체결했던 25억 원  
규모의 세포가공물 중간공정 가공업무 위  
탁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에스케이, 웰크론, 유지인

트, 왕입푸드, 아스트, JW신약, 팍스넷, 아  
이에이, 세미콘라이트, 크로바하이텍, 에이  
디칩스, 기기레인, 웨이브일렉트로, 스맥,  
바이오빌 등이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지난달 28일 증시 폐장일에도 주식 취득  
일정을 연기하거나 공급 계약을 변경하는  
공시들이 유독 많았다. 이날 현대엘리베이  
터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비상  
장 자회사 현대아산이 시설 및 운영자금  
마련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재  
무 상태가 좋지 않은 현대아산의 유상증자  
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중국 합작사인 산둥원생  
제약유한공사 지분 취득 예정일을 올해  
12월 31일로 1년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이 회사 지분 50%를  
2016년 말까지 39억 원에 취득하겠다고  
2014년에 밝혔지만 계획보다 3년 연기된  
것이다. 오메리 기자 yerin2837@

# 반도체용 UHP 개발, 신성장동력 확보

(초정밀 고정정)

## 기업 주식 담당자

## 주담과 Q&A

### 비엠티

## 비엠티 주가 추이

(단위: 원)



비엠티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초정밀 고정정 제품  
(UHP:Ultra High Purity) 개발로 신성  
장동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중국, 미국 등  
에서 UHP 매출 대부분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내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도  
기대하고 있다.

- UHP는 뭐가?  
"반도체 장비산업, FPD산업에 적용되는  
재료로 반도체용 초정밀 고정정 제품  
(UHP)이라고 한다. 고정정 가스가 사용되  
는 설비·장치에서 배관라인의 연결을 제어  
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제조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2012년 신사업  
에 진출했고, 2017년 4분기 설비 증설까지  
완료했다. 밸브 중에서도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실제 매출은?  
"국내 UHP 시장이 단순하게 1000억 원  
에 달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보다 클 것  
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시장은 추산할 수  
도 없다. 지난해 상반기 UHP 매출 중  
8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중국 중  
심으로 수주가 크게 늘었다. 중국은 UHP

## 반도체 장비·FPD산업에 적용 美·中서 매출 확보... 국내도 기대

생산 업체가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향후 현지 시장이 커지면 관련 수출도  
당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투자  
지연에 대한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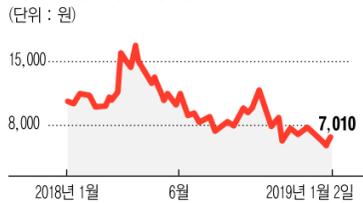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투자가 미뤄진  
건 사실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의  
UHP 공급업체로 승인되려면 선투자가 이  
뤄져야 가능하다. 개발부터 등록까지 시간  
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이 있  
듯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다. 업계에서는  
어렵다고 반도체 투자를 중단할 순 없다고  
해석한다. 일단 국내 주요 업체에서는 지  
연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승  
산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UHP는 국  
내 고객사가 아니라도 해외 매출이 가능  
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정희 기자 jih@

# 제노포커스, 11兆 '장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

반려견 임상서 치료 효과 확인  
연내 미국 FDA 1상 IND 제출

## 제노포커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제노포커스의 신약 개발 자회사 바이옴  
로직이 올해 말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제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임상 1상 시  
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전망이다.

임상 IND는 보건의약 당국에 신약 개발  
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첫 단계다.  
보건 당국은 IND 과정에서 후보물질이 사  
람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안전성 검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회사 관계자는 2일 "바이옴 신약 후보물  
질 'GF-101'을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 치  
료제는 현재 반려견 대상의 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 미국 FDA 임  
상 1상 IND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한다. 대부분의 바이오의약품이 주사  
제형이지만 바이옴로직의 신약은 경구용  
바이옴로직으로 개발 중이다.

장질환 치료제는 바이옴로직 파이프라  
인 중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제노포커스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의 경  
우 전임상 마무리 단계다. 후보물질 개발  
다음 단계는 전임상이며 전임상 종료 후 단  
계가 임상 1상이다. 현재 전임상 단계 내  
소화기 질환 T2B센터의 유효성 평가가 진  
행되고 있다. T2B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  
정을 받은 병원 소속 기관이며, 특정 질환  
관련 후보 물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내부에선 장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  
를 2020년 95억 달러(10조7000억 원)로  
예상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im@

## 동양네트웍스, 신보 정보시스템 '오아시스블루' 오픈

동양네트웍스는 신보보증기금(이하 신  
보)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아시스블루'  
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템통합  
(SI) 업계에선 드문 30개월 장기 사업으  
로, 금액으로는 29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동양네트웍스에 따르면 오아시스블루는  
사용자 친화적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국산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를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해 업무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빅데이터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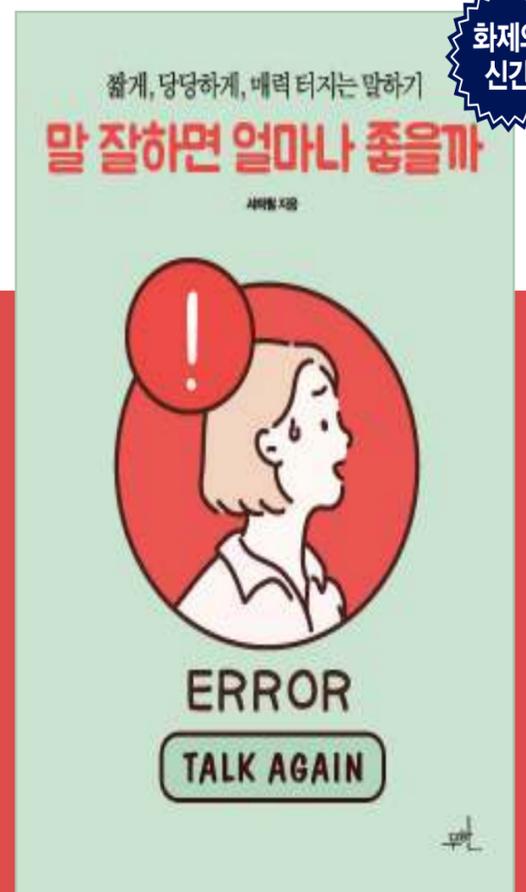
석 및 핀테크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  
템이다. 신보는 이 사업으로 일부 업무를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고객만족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신보 설립 이후  
40여 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  
업별·업종별 이상징후 진단, 기업 위험 분  
석, 신용·재무 분석 등 맞춤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 '집값 호재' 검증된 SRT 수혜 기대 분양 단지는?

## SRT 수혜 기대되는 신규 분양 단지

SRT 노선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일반분양)	전용 면적(㎡)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889(623)	35~84(59~84)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35-1번지 일대	이안 센트럴D	아파트 999 오피스텔 180	59~116 51~68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21-6번지 일대	동대구 에일리의 뜰	705	59~84

### 고속철도 주변 주거 여건 개선 개통 2년간 집값 상승세 특특 최근 분양 단지들도 청약 대박 광주송정역 '반도유보라' 등 SRT 인근 신규 프리미엄 기대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가 개통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12월 수서에서 목포, 부산까지 개통된 SRT는 지방 및 경기 지역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RT 노선에 인접한 지역들의 경우 수요가 늘며 가격 상승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서 주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그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집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RT 개통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을 학습한 수요자들이 SRT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 몰리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 또한 큰 상황이다.

실제로 SRT 동탄역이 위치한 동탄2신도시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세를 보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내 위치한 '시범우남퍼스트빌'의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가 2016년 1월 4억9000만 원이었지만

SRT 개통 시기인 2016년 12월에는 5억 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또 SRT 개통 2주년을 맞은 2018년 12월에는 7억5000만 원까지 형성돼 최근 2년간 평균 매매가가 2억 원가량 상승했다.

지방 부동산시장도 비슷하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SRT 익산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익산e편한세상'은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가 2016년 1월 1억7250만 원에서 같은 해 12월 1억9500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2억2500만 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신규 분양 단지들도 인기를 끌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성백조가 동탄2신도시 C7블록에 분양한 '동탄역 에미지 3차'는 1순위 청약에서 10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월 유림E&C가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은 18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SRT 노선이 정착하는 지역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되며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SRT 광주송정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달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35~84㎡ 총 8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2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하락 전환 주택시장...서울·인천·경기 상승 유지

### 지난달 주택 매매가 -0.01% 인천은 정비사업 영향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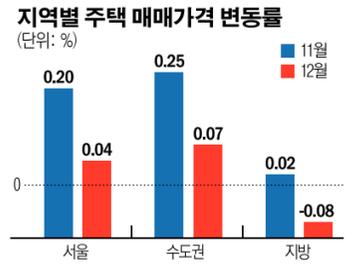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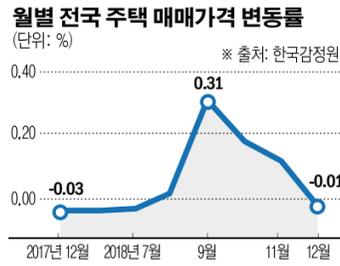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25%→-0.07%) 및 서울(0.20%→-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8%)은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13대책 등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하며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은 역세권 및 저평가 단지 수요와 정비사업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서울 인근과 교통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강북구(0.22%), 성동구(0.19%), 동대문구(0.11%) 등은 상승폭이 줄었고



노원구(-0.03%)는 하락 전환되는 등 종로구(0.51%)를 제외한 지역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또한 서울 강남 11개구는 재건축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일부 하락세로 돌아서며 강남구(-0.32%), 송파구(-0.23%) 등 강남4구와 동작구(-0.05%)는 하락하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00%) 등 나머지 구는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방에서는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 공급 증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매이 적체되며 대전·대구·광주 등 5대광역시

시를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폭이 커졌다.

아울러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9% 하락했다. 수도권(-0.06%→-0.19%)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13%)은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구(-0.67%), 강동구(-0.45%) 등 강남4구와 동작구(-0.25%)는 헬리오시티, 흑석뉴타운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졌고 영등포구(-0.08%) 등 대도시 지역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 건설업계 신년 화두 “효율성 강화”

### 시스템 재정비·전문역량 강화

2019년을 맞이한 건설사 CEO들의 신년사에 비장함이 가득했다.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위기'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를 저마다 내비쳤다.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펀더멘털을 강화해 경쟁 우위를 창출해야 한다”며 “낭정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근본 원인(Root Causes)을 파악하고 표준, 프로세스, 시스템 기반의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해 업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도 어려워진 국내외 시장환경을 우려하며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국내시장은 주택경기가 위축돼 과거와 같은 호경기는 기대하기 어렵고, SOC 시장도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나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우 대림산업 사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사업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어

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디벨로퍼 시각에서 큰 그림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실수도 줄이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기대할 수 있으며 디테일을 챙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 동시에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독려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에 대내외 환경의 위기를 강조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 사장은 “외부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글로벌 건설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올해가 바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사장도 “국내 건설시장은 각종 규제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시장 정체 또는 축소가 예상되며 이에 해외목표 시장의 선별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은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건설사 배상책임 있다”

대법 “장기계약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차·계약별로 따져야”  
원심 깨고 서울·부천시 손 들어줘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 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립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와 부천시는 4개 건설사가 2004년 지하철 7호선 운수·상동 연장 공사 일부 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2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건설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손해배상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지자체 등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로 총공사 금액과 총공사 기간을 정하는 이른바 ‘총괄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매년 공사대금 지급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연차별 계약을 맺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연차별·계약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일을 총괄계약을 맺은 2004년 12월로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기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며 “원심은 연차별·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차량화재 ‘결함 은폐 결론’…BMW 재판 다시 불붙는다



올해는 초심을 잃지 말고...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서울 꿈새감판 앞에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신년 문안 공모전에서 당선된 김경규 시민의 '새해 첫발을 내딛는 이에게 하얀 겨울은 찬찬히 걸어가라 말하네'를 2019년 첫 문구로 선정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민사사건 3월 14일 변론기일 재개  
BMW코리아도 “소송 진행해달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중단됐던 재판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잡힌 기일이자,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던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도 12월 28일 양측에 변론기일을 통보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22일이다. 기일을 지정한 다른 재판부들도 대부분 3월에 다음 변론기일을 연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감안해 재판 일정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재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BMW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조사 결과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미 예정된 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었다.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사를 이유로 BMW코리아 측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중선 변호사도 “공식 결과가 나와 다른 재판보다 변론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르면 여름, 적어도 올해 중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車 수도권 운행 제한

서울시 조례공포...내달 15일 시행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 대, 경유차량 267만여 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상처나 미움을 잘 다스리면 인생의 큰 힘이 되죠”

## 구술생애사 작가 최현숙의 ‘똑바로 마주하는 삶’이란

“아버지를 미워한 힘으로 내 길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는 최현숙(62).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갈등으로 모든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의심을 품었다. 가출을 반복하던 끝에 출가(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천주교 사회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갔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수십 년간의 술한 방황과 기행(奇行). 환갑을 지나 구술생애사 작가로 사는 요즘, 그녀는 이제야 제법 그 쓸모를 알 것만 같다.



진보와 정치의 교착 속 중년기를 보낸 최현숙은 10년 전 요양 노동을 선택했다. 요양보호사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서 노인돌봄에 몸담았고, 그들을 만나면서 구술생애사 작업을 진행했다. ‘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차이가 날라나?’, ‘할배의 탄생’ 등을 펴내며 구술생애사 집필에 몰두해온 그는 최근 에세이 ‘살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출간했다. 한동안 타인의 삶을 바라보던 그녀가 말하는 ‘똑바로 마주하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

“대개 우리는 즐겁고 좋은 일은 가까이 하려 하지만, 어렵고 불편한 일은 회피하죠. 살을 똑바로 마주한다는 건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이고 기울어진 것들을 자기 시선을 통해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에요.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현상들을 주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정답이 아니어도 나름의 시선을 만들어야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길러져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까지 직시해야 나를 제대로 알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나 미움도 잘 다스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 살을 똑바로 마주한다는 건 자신의 긍정적인 것은 물론 부정적이고 기울어진 것들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보려는 노력

우리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다. ‘최현숙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에세이’라는 부제 속 단어들이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물론 최현숙의 화려한 이력(?)을 보면 ‘그럴 만하다’ 싶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이든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주의 진영에서 자주 쓰는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에 적극 동의해요. 나의 몸, 나이, 심리적·경제적 상태는 모두 정치적인 겁니다. 가령 여성의 몸을 통해 무엇이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잣대나 낙태 문제 등도 정치적인 부분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이든 들여다보면 남성과 여성, 돈 버는 사람과 안 버는 사람, 노인과 아이 등 그 안에 첨예한 권력 관계가 존재해요.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와도 맞닿게 되죠. 그러나 대개 나와 가족의 일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감추려 해요. 가정폭력만 해도 사적인 가정사로 여기지만, 그렇게 은폐하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봐요.”

최현숙은 연명의료를 거부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칼럼을 썼다가 가족들에게 못매를 맞았다. 존엄한 죽음, 웰다잉이 화두로 떠오르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이야기였지만, ‘사적인 것을 왜 공개하느냐’라는 게 이유였다. 그렇게 그녀의 소신을 따랐던 행동들은 종종 가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운동을 했어

요. 사회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다 겪는 고충이지만, 제 경우엔 돈벌이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식들 안 챙기고 남 좋은 일 한다고 욕 많이 먹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나 형제에게 ‘모성애가 없느냐’, ‘영웅심에서 그러느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모성애가 없는 여자인가?’, ‘정말 영웅심에 찌든 인간인가?’라는 의심과 자책을 했어요. 양쪽을 다 돌볼 수 없는 현실이 늘 괴로웠죠.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자괴와 자책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들 역시 내가 인정하고 성찰해야 할 과제이죠.”

“자기 성찰”이라는 말은 악히 들어 대부분 알지만, 막상 그 실천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떤 일든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의문을 품고, 그 이유를 추적해보고 있어요. 물론 답은 없거나 하나로 정리되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파고들다 보면 그것을 불편하게 보라는 여러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현숙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이 아닌, 사회 규범이나 고정관념, 이데올로기로 인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 저것이 정상이고 비정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스스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러나 사회의 시선이 아닌 ‘나의 눈으로 제대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별문제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기회 만들고파

“그렇게 불필요한 불편을 벗겨내고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면 결국 내 안의 상처를 발견하게 돼요. 가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 안의 상처와 연결되는 어떤 선이 건드려진 경우예요. 그 자신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 때문인 거죠. 내 안의 어떤 상처가 남아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정 무엇으로 행복한가”를 알아가고 싶다는 최현숙 작가는 현재 삶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일은 ‘구술생애사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인생을 통해 자기 생의 쓸모와 보람을 깨닫고 있다.

강박 없는 성실이 가능해진 삶 이해받지 못할 일들을 해나가며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고, 수많은 사람을 대면했다.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상처도 적지 않았다. 덕분에 소외된 이들의 아픔과 그늘을 잘 이해한다는 그녀. 구술생애사 작가로서는 적격의 삶을 살아온 셈이다. “자기 가치관이나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과 뻔(?)을 한 세월 덕분에 나처럼 해매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가 잘되는 거죠. 인간에게 선(善)과 악(惡)은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처지와 맥락이 있었을 뿐이죠. 구술생애사 작업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없고,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어요.” 타인의 인생을 듣는 것에 익숙할 그녀에게 혹시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생애를 구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뢰가 없지는 않았지만 작가에게 사정이 생겨 중단했다. 대신 오래전부터 직접 지난 삶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돈이나 겉으로 보이는 건강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은 물론 소외된 이웃까지 사랑한다면 진정한 행복 아닐까

“나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삶의 처지와 맥락은 무엇이였을까. 나 자신을 납득시키는 글이라는 점에서 회고록보다는 ‘해명’이라는 제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 부유하고 잘 배운 사람이라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 그게 사회에서의 나의 쓸모라

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독립한 뒤, 혈(血)로 엮인 의무와 자책은 어느 정도 털어냈단다. 60대를 사는 현재 ‘강박 없는 성실’이 가능해진 것에 만족스럽다는 그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바람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돈이나 건강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행복의 외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건강해도 속이 부글부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들을 찾고,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그뿐이죠.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애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소외된 이웃까지 사랑해야죠.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내 욕망에서 출발하되 사회적 욕망과 연결되는 일일 수만 있다면, 여성은 그걸로 족합니다.” 글/이지혜 기자 jyelee@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 “성폭력방지법 ‘여성을 위한 법’으로 돌려 안타까워”

기획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

## 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2년간 2000여명 사회적 약자 만나 함께 만드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국민들이 국가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것 외에는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견제가 이뤄져요. 채널이 많아지고 다각화해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본인만 입법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가능성과 다양성을 위해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내려놓은 이유다. 바른미래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인재영입특별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9세였다. 바로 위의 신보라(당시 만 33세)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혜영(당시 만 39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차이가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대는 김 의원이 유일했다.

‘젊은 피’ 김 의원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가 20대 국회에서 청년, 여성, 한부모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청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5000만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자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2년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 만남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 ◇ 60배의 부담감 안고 만든 ‘내일티켓’

“2030이 원하는 어젠다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100명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 300명 중 3명이 동성애자여야 하잖아요. 대표하는 성향과 성격들이 맞아야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2030 세대가 우리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이라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최소 60명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20대는 저 혼자였던 거죠. 60명이 대변해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 명이 대변해야 하니, 60배의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청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 세대들 안에 정치 혐오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렇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 ‘내일 티켓’을 만들었다. 국민 누구나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들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정치에 대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국회에 들어오고 놀랐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는데,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청년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화제의 ‘오버워치(OVERWATCH)법’도 그렇게 탄생했다. 온라인상에서 유저들이 키보드로 게임을 하던 문화가 음성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형태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평소 게임을 하지 않았던 그는 몰랐다.

‘오버워치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5000번 이상 리트윗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법은 항상 현상의 최후단에 있으니까 사회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난 후 법안이 생긴다”며 “음성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이 굉장히 많은데,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비슷한 관련 규정으로 처벌해 왔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 “2030 의견 전달하는 역할 위해 국회 입성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후반기 국회에 여성가족위원회에 당당히 ‘입성’하게 됐다. 여가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던 시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1020의 정치적 관심이 업그레이드되고 촛불시위 등을 통해 10

### 자신의 몸에 ‘자기 결정권’ 없는 시대 정치권서 여성의 목소리 이끌어내야

대들의 정치적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여성 안에서도 세대 간 어젠다가 세팅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을 국회가 과소대표 하다 보니 이제까지 유리천장, 위안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며 “2030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4050 여성들의 이슈는 다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 간강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법안에 앞장선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이게 어떻게 여성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민스 노 룰’은 직장 내에서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오버워치법’을 만들면서도 제일 많이 본 댓글이 ‘남자들은 게임하지 말라는 거냐’였어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성폭력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반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어요. 성범죄와 관련해 남성이 가해지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감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성적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로 형성돼야 비로소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수십, 수백 년간 무시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 헌법조차 육아를 엄마의 몫으로 돌려 부모 역할 강조하려 ‘김지영법’ 발의

◇ ‘부성 육아휴직’ 담아낸 ‘김지영법’… “아이 키우는 책임, 아빠에게도 있다”

김 의원은 평범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차별을 담담하게 풀어낸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김지영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의 개정안 중 하나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다른 하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영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봤는데, 정말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어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죠. 이제까지 국회에서 모성의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되게 많아요. 육아휴직을 정한다거나, 보호하고 지키는 것들이요.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꾸는 열쇠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은 데 있더라고요. 이 조항을 다시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부성은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엄마에게 지우고 있더라고요.”

김 의원은 ‘육아를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김지영법’을 만들었다. 종전의 전제를 깨 버리는 것부터 해결책이 나온다고 결론을 내리자 자신감이 생겼다. ‘김수민이니까 가능한 국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도, 김 의원은 “규칙을 없애고 상상력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라는 ‘진짜’ 대답을 내놨다.

“우리 사회는 비정상이에요. 더 창의적인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그 시작점이 그들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이방도 그래요. 모두가 이 방을 의원실로 쓰잖아요. 회의실로 쓰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건 주어진 대로만 받아들이고 상상을 안 해요. 박스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모두가 프로이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그 박스가 정치를 공부하지 않은 아마추어인 제네 보이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고 상상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예요.”

김소희 기자 ksh@

## 시민의 목소리 입법화 플랫폼 ‘내일티켓’

###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 ‘오버워치법’ 등 16건 법안 발의 성과

‘내일티켓’은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운영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티켓’이라는 뜻의 ‘내일티켓’을 만들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적고, 김 의원이 발의했으면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100자 이내로 적어서 올리면 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 2000여 명을 만나 그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관련 법안의 내용을 수기로 받은 뒤, 150명의 청년과 함께 입법작업을 진행했다.

내일티켓을 통해 발의된 법안만 16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 근절법이다. 이는 이성 간 성관계 등 불법 촬영된 디

지탈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릴 경우 웹하드 업체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불법 디지털 영상물을 유포·방조하는 업체들을 처벌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오버워

치(OVERWATCH)법’도 있다. 이 법안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한 청년이 음성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성희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남자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생계 자립을 위해 친권자 동의 없이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내일티켓 프로젝트를 통해 입법화됐다.

김소희 기자 ksh@

# “금전적 이익 포기, 동료에 도움...서로 자부심 느껴”

## ‘연차나눔 정착’ 롯데마트 소통혁신팀 박강용 책임

올해 5년째, 직원 15명이 228명에게서 기부받아 사용 회사 밖까지 입소문 ... 벤치마킹하려는 기업들 문의도

“경제적인 이익을 거기에 포기하고 동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 운영자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롯데마트가 2015년 3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연차나눔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차와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직원에게 동료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행복 일터, 희망 나눔’ 캠페인의 하나다. 제도를 운영하는 소통혁신팀 박강용 책임은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지만 그만큼의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동료를 위해 무언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연차나눔제도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박 책임은 “회사에서는 본래 ‘행복 일터, 희망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직원에게 금전적인 지원만 했었는데 직원들이 먼저 ‘이런 동료가 있는데 연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도움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면서 연차 나눔 제도가 추가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반 1년까지는 제도가 생소하다 보니 크게 퍼지지 않았는데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 동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차를 기부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오는 직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15명의 롯데마트 직원들이 총 228명의 연차 기



롯데마트 소통혁신팀 박강용 책임은 ‘연차나눔제도’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부자들로부터 384일(1인 평균 1.7일)의 연차를 나눔받아 이용하고 있다. 연차 나눔의 수혜자는 롯데마트가 행복심의회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박 책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최근 연차 나눔에 동참했던 사연을 꼽았다. 그는 “사내 부부 중 배우자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부인이 병 간호를 해야 하는데 본인 연차, 휴가를 다 쓰고도 부족해 나중에는 퇴사까지 고민하더라. 마침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됐고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연차를 기부해 75일의 연차를 나눌 수 있었다”며 “그렇게 나눔받은 연차로 부인은 남편을 간호했고 남편은 두 달 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밖으로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연차나눔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기업도 생겼다. 박 책임은 “최근 철강회사에서 제도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다른 회사에도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 나눔 활동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LS그룹 3세’ 이상현 태인 대표 ‘남북 우표 교류’ 과기부장관 표창

LS그룹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룹 3세 이상현(태인 대표)가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현 대표는 LS그룹 창업



한영대 기자 yeongdai@

주 고(故) 구태희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이 대표는 10월 정부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표들로 북한 우표 특별전시관을 개설, 우편 사업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 ‘2018 올해의 KAIST인’에 이정호 의과학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18년 올해의 KAIST인’에 의과학대학원 이정호(41) 교수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수는 후천성 뇌 돌연변이에 의한 난치성 뇌전증 발생 원리와 치료 가능성을 최초로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게재되기도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인사

- ◆이투데이 △산업부장 박성호 △자본시장2부장 이진우
- ◆환경부 <국장급> △자원순환정책관 이영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신성경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정선화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혁신도시추진단 혁신도시상생발전과장 이태훈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부영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용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강용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손동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영광열 △의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임동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구병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공기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유병철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박준수 △혁신도시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장 박진열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과장 김현태 △소속특기과장 변혜중 △연안해안과장 최종욱 △해양물류기획과장 김용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전우진
- ◆통계청 <일반고위직 공무원 전보> △조사관리과장 최연옥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한상태 △동대문중량지사장 이재우 △서대문은평지사장 김정수 △강북북부지사장 김충현 △노원도봉지사장 김완호 △남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강대인 △강동송파지사장 김현태 △관악동작지사장 백준호 △강서양천지사장 신용석 △강남지사장 전상기 △인천본부 △전력관리처장 신대우 △남인천지사장 전재은 △부천지사장 윤태일 △경기북부본부 △고양지사장 김상운 △파주지사장 배영진 △경기본부 △전력관리처장 전중구 △안양지사장 하동혁 △안산시지사장 윤상현 △오산시지사장 김준호 △평택지사장 김용배 △강원본부 △강릉특별지사장 진장호 △원주지사장 홍호웅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창기 △천안지사장 조성인 △대덕유성지사장 허태오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장 김경권 △여수지사장 서재영 △대구본부 △전력관리처장 이정원 △동대구지사장 김경호 △경주지사장 정만길 △남대구지사장 정치호 △서대구지사장 안규선 △부산울산본부 △전력관리처장 김태의 △울산지사장 박성철 △경해지사장 이범의 △남부산지사장 문형일 △경남본부 △전력관리처장 박갑호 △진주지사장 김준식
-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보> △지역진흥본부장 권순록 △울리경영실장 최재익 △기획조정실장 백승한 △예산관리실장 윤용준 △경영지원실장 한정석 △인재개발실장 김성수 △공해기획실장 김경필 △금속공해실장 정영국 △석탄공해실장 박성진 △비금속공해실장 김태혁 △지역진흥1실장 고도인 △지역진흥2실장 김희중 △국제협력실장 최승진 △자격검정실장 안종만 △석연탄산업지원단장 강철준 △석탄지원실장 노순기 △연탄지원실장 강대문 △기술연구과장 양인재 △기술연구소 공해방지연구실장 이진수 △기술연구소 분석평가실장 이상환 △강원지사장 최상승 △충청지사장 남광수 △영남지사장 임영철 △강원지사 사업관리부장 심재현 △강원지사 석연탄지원부장 고성직 △강원지사 시설운영부장 오세강 △충청지사 사업관리부장 원철호 △충청지사 석연탄지원부장 허원중 △영남지사 사업관리부장 권광호 △영남지사 석연탄지원부장 이복순 △경북지사 사업관리부장 주상돈 △호남지사 사업관리부장 서병성
- ◆신한은행 △본부장 업무부장 △영업추진2부 본부장 정용욱 △강남본부장 신연식 △강동본부장 이상수 △강서본부장 이영중 △남부본부장 서미숙 △동부

- 본부장 이범미 △북부본부장 박광욱 △서부본부장 이상화 △서초본부장 윤봉선 △중부본부장 최익성 △강원본부장 김기호 △경기동부본부장 서용근 △경기서부본부장 김석주 △경기중부본부장 마호창 △경인본부장 장용석 △인천본부장 정경각 △일산본부장 성연숙 △대전충남본부장 이준우 △충북본부장 정도영 △대구경북본부장 최상열 △부산경남본부장 안준식 △부산울산본부장 전남수 △호남본부장 차성중 △대기업계열영업1본부장 박현준 △대기업계열영업2본부장 이영철 △대기업계열영업3본부장 변상모 △대기업계열영업4본부장 최원지
- ◆JB금융지주 <임원 선임> △경영전략본부 상무 하현 <승진> △1급 △리스크관리부장 김경진 △검사부장 박성민 △2급 △경영혁신부장 황인철 △IT기획부장 임종원 △리스크관리팀장 박용수 △3급 △검사부 Senior Manager 이현희 △경영혁신부 Senior Manager 윤경남 △리스크관리부 Senior Manager 전행남 △홍보부 Senior Manager 김상환 △4급 △미래전략부 Senior Manager 양일호 △재무기획부 Senior Manager 김상균
- ◆KB생명보험 <부사장 승진> △전략영업본부 유재준 <전무 승진> △리스크관리본부 송운상 <신임 임원> △BA영업본부 전무 신성균 △자산운용본부 전무 박철 <신임 부사장> △BA영업추진부 부장 이성훈 △채널지원부 부장 송운주 △준법지원부 부장 엄준형
- ◆KB자산운용 <신규선임> △준법감시인 전무 최상국 △위험관리책임자 전무 구승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하재진 △부산자산운용본부장 상무 신명재
- ◆KT그룹 · ktb투자증권 <승진> △상무부 △채권영업팀장 윤신영 △부동산금융팀장 이호준 △개발금융팀장 이원범 △이사 △IT지원팀장 오임권 △홍보팀장 김진호 △감사실장 황병민 △SPC지원팀장 성선익 △구조화금융팀장 김우영 △개발금융팀장 양승훈 △경영혁신팀 이재영 △중합투자1팀 모상원 △부장 △IT트레이딩팀 손승안 △리스크시스템팀 이숙현 △강남금융센터2지점 박성용 · ktb자산운용 <승진> △상무부 △경영기획본부장 손석찬 △이사 △리테일 마케팅팀장 장용훈 △법무팀장 이석동 · ktb네트워크 <승진> △부사장 △김창규 △이사 △현직총 △강문수 · ktb pe <부회장 선임> △김경렬 <승진> △부장 △투자본부장 정연하 · ktb신용정보 <대표이사 선임> △홍준봉 <승진> △부장 △경영지원부 오태영
- ◆ABL생명 <승진> △평가수상수부장 산승훈 △준법경영부장 구분기 △동부BA사업단장 김성준 △서부BA사업단장 백경호 △인천지역단장 박준수 △충북지역단장 김진호 △울산지역단장 서정섭 △전북지역단장 양춘광 △정보보안팀장 강희구 △변액계정운영팀장 최미영 <이동> △GA전략부장 서정현 △서부GA사업단장 박현영 △강북GA사업단장 김도진 △동부지역단장 이강수 △충청지역단장 유영민 △특별계정운영팀장 이현규
- ◆메리츠화재 <상무부 선임> △장기전략파트 김병규 <전무 전보> △채널영업부부장 박용주 △상무 전보 △전략영업총괄 김경환 <상무부 전보> △준법감시인 전계룡 △정보보안담당장 승중순 △일반손해사정팀장 이원경 <파트장·센터장급 전보> △감사파트장 홍성진 △준법감시파트장 김민태 △IT지원파트장 장진우 △IT개발파트장 양두혁 △IT서비스파트장 김혁 △정보보안파트장 박재성 △IT품질파트장 정영성 △고객지원파트장 유인달 △장기상품파트장 정봉환 △장기보상리스크관리센터장 이규호 △장기제품손해사정센터장 심재일 △수소도관센터장 윤현정 △교차본부장 홍승남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황두희 △다이렉트TM심사파트장 이유미 △재물해상U/W파트장 이명원 △트럭중U/W파트장 윤경환 △재물해

- 상손사파트장 이용태 △특종손사파트장 안광선 △방재컨설팅파트장 홍승범 △일반손사지원파트장 이윤경 △SOLUTION파트장 이성원
- ◆메리츠증권 <신규선임> △황태영 구조화투자본부장 전무 △이광훈 글로벌 PI본부장 전무 △김태호 자산운용본부장 전무 △유승호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 ◆DB손해보험 <부사장 승진> △보험수리파트장 황광연 △영업지원파트장 이성휘 △영업교육파트장 이창선 △강북본지원팀 김한수 △부산본지원팀 이상식 △서광주사업단 오경보 △송파파트 이동규 △소비자정책파트 장영석 △감사파트 문진욱 △SIU지원파트 김양태 <부사장 이동> △마케팅전략파트 송민호 △고객전략파트 이정형 △업무지원센터 제운 △자동차보상지원파트 박경학 △부산대인보상부 최홍준 △충청대인보상부 서종선 △호남대인보상부 주용선 △지방스피드대인보상부 최병일 △영업기획파트 김정수 △중앙사업단 윤상봉 △구리사업단 김근태 △강남본지원팀 김태준 △남부사업단 손운배 △강서사업단 신수호 △강동사업단 현열식 △인천사업단 이홍선 △수원사업단 김주택 △평택사업단 이한우 △동래사업단 박경섭 △창원사업단 정해현 △통영사업단 김경민 △대구사업단 박병찬 △동대구사업단 권무영 △포항사업단 이종훈 △구미사업단 이은식 △천안사업단 임대순 △서해사업단 김광진 △호남본지원팀 김덕진 △광주사업단 최영철 △교신사업단 황성택 △성동사업단 황인섭 △여의도사업단 강민규 △경인사업단 정광수 △충청사업단 조진하 △서울방카사업부 강영선 △경인방카사업부 김정철 △신체날지원파트 이교석 △신체날사업2부 조성호 △다이렉트지원파트 유재웅 △다이렉트사업1부 이동재 △다이렉트사업2부 간인영 △다이렉트사업3부 손정호 △신시장보현파트 박준선 △해외지원파트 허문희 △준법감시파트 김철호 △소비자보호파트 신의철 △계리지원파트 최선호 △경기대인보상부 최병희
- ◆DB금융투자 <승진> △부사장 △IB사업부장 손승균 △프로젝트금융사업부장 광복석 △상무부 △법인영업본부장 이동규 △기업금융본부장 황세연 △FAS본부장 이성욱 △투자금융본부장 박재범 △중합금융본부장 정동철 △1지역본부장 이병진 △리서치센터장 장화택 <보임> △WWM전략팀장 김찬구 △강릉지점장 정명규 △화성항남지점장 정효성 △청주지점장 광서 △법인영업1팀장 김형중 △기업금융3팀장 한철웅 △FAS1팀장 이윤경 △투자금융팀장 김홍경 △중합금융팀장 조학현 <전보> △2지역본부장 김우상 △WWM지원팀장 이병성 △디지털혁신TFT팀장 김현국 △WWM전략파트장 김성수
- ◆KR투자증권 <승진> △IT팀 이사부 이수민 <신규> △SS팀(Special Situation Team) 상무 연인배 △SS팀 상무 김나기
- ◆한국신용평가 <승진> △IT센터 센터장 권상익 △구조화RM본부 센터장 하대경 △금융공공RM본부 센터장 김병진 △기업평가본부 그룹실 실장 이길호 △PF평가본부 PF2실 실장 이용범
- ◆종근당 <승진> △종근당 △이사 한경희 신성호 김민재 이복세 권유정 우영아 김우석 문진욱 · 경보 제약 △상무 채현숙 · 종근당건강 △상무 김용철 △이사 전덕현
- ◆보령그룹 · 보령홀딩스 △전무 장두현 · 보령제약 △사장 이상수 △전무 윤상배 △상무 김성현 박경숙 △상무부 이민호 · 보령메디앙스 △부사장 이현규 △상무부 박수찬 · 보령바이오파마 △상무 유영규 박명배 △상무부 송주호 · 보령컨슈머 △부사장 박인오 △상무부 김승집
- ◆코웨이 <상무 승진> △김동화 생산운영본부 유구공장장 △박관정 환경기술연구소 개발1본부장 △순경주 환경기전사업본부 유통영업본부장

- ◆중흥건설 <전무이사 승진> △건축부 박상수 김남두 <전무이사 대우 승진> △기획부 신성석 △토목부 양순길 △법무실 백승권 <상무이사 승진> △건축부 김오형 심오섭 이경호 △토목부 김운태 △주관부 임상수 <상무이사 대우 승진> △건축부 이일재 배종휴 나성윤 △안전부 김연중
- ◆신영그룹 · 신영 △사장 김성환 △상무 김용정 · 신영에셋 △상무 박희원 · 신영플러스 △전무 정동희
- ◆요진건설산업·요진개발 <부회장 승진> △최은상 · 요진개발 △대표이사 송선호 △이사 김형석 박종은 △부장 이규연 권순길 문순영 이호
- ◆DB이티비 <상무 신규 선임> △박재택 제품개발팀 개발파트장 △전상국 Fab1 제조팀장
- ◆팬스타그룹 <상무이사 승진> △그룹총괄 경영기획실장 김상국 <이사대우 승진> △글로벌화물영업부 문도립팀 담당 임원 김영섭
- ◆경향신문 <승격 및 보직변경> △국장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양근오 △부국장 △편집국 주간경향 에디터 겸 편집장 조홍민 △스포츠경향광고국장 황재무 <승격> △부국장 △편집국 국제·기획에디터 조찬제 △ 문화에디터 도재기 △ 스포츠산업팀장 엄민욱 △ 편집부 편집1팀 서의형 △미디어제작국 제작팀 총괄실 △부장 △편집국 편집부 편집1팀 정덕균 △ " 편집2팀 강호태 △ " 전국사회부 박준철 이명희 △ " 사진부 서성일 △ " 교열부 김진경 △ " 스포츠편집·온라인부 최혁근 △ " 주간경향부 정용인 △전략기획실 경영정보팀 이명원 △경영지원국 총무팀 최정민 △ " 시설관리팀 광명수 △윤전국 윤전1팀 오원호 △독자서비스국 발송팀 박영문 △광국국 광고1팀 박정욱 <보직변경> △미디어제작국장 배병문 △독자서비스국장 심우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종훈 △편집국 편집부장 이승규 △ " 경제부장 김준기 △ " 산업부장 오관철 △ " 정책사회부장 박재현 △ " 전국사회부장 송현숙 △ " 사진부장 정지윤 △ " 스포츠부장 안승호 △ " 모바일팀장 김창호 △ " 뉴콘텐츠팀장 이지선 △ " 선임기자 구정은 △ " 편집부 선임기자 권유진 △ "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이상호 △ " 사진부 선임기자 김정근 △ " 뉴콘텐츠팀 선임기자 박민규 △전략기획실 기획인사팀장 최영환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장 양재환 △미디어제작국 제작팀장 정석모 △ " 정보기술팀장 강무성 △윤전국 윤전2팀장 옥광덕 △독자서비스국 판매관리팀장 윤효진 △경향플러스 콘텐츠팀장 오광수 △ " 관리팀장 하정
- ◆헤럴드 · 헤럴드 △이사 윤석훈 △부장 김일림 · 헤럴드경제 <승진> △국장 이혜준 △부장 한석희 조용직 △전보 △정치섹션 에디터 김명성 △사회섹션 에디터 조병자 △IB금융섹션 에디터 홍길용 △소비자경제섹션 에디터 권남규 △리얼푸드팀장 박영훈 △이슈팀장 신상윤 △정치팀장 강문규 △사회팀장 홍석희 △IB증권팀장 김상수 · 코리아헤럴드 <승진> △부장 이주희 김지현 이운주 <전보> △선임기자 겸 모바일기획팀장 양승진 △외신팀장 이현주 △K-pop 팀장 이지운
- ◆파이낸셜뉴스 <전보/보임> △디지털뉴스부장 <부국장대우> 정훈식 △디지털편집부 부장직무대행 이대훈 △디지털뉴스부 건설부동산담당 선임기자 김관용 △디지털뉴스부 산업·경제담당 선임기자 김성원 △디지털뉴스부 증권·금융담당 선임기자 강문순 △디지털뉴스부 정책·사회담당 선임기자 김두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정순민 △글로벌콘텐츠부장 최진승 △편집부 편집팀장 변종권 △신문부 교열팀장 홍종민 △편집부 디지털팀장 정재진
- ◆브릿지경제신문 <전보> △브릿지경영연구소(국장급) 강창동 △생활경제부 부국장 이현규 <채용> △건설부동산부 이기영 부국장



농협, 새해 첫 출근 직원에 꽃 선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일 새해 첫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 화분을 선물하고 있다. 농협은 이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김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임원진이 직원들에게 책상용 꽃 화분 2000개와 재배방법이 담긴 전단을 나눠줬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게시판

이인호 前 차관,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 이인호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동차산업협회장에 정만기 前 차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7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중앙고, 서울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10 낭테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부음

▲양영아 씨 별세, 양창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씨 부친상 = 2일, 제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0시, 064-742-5000  
▲이관우(디지틀조선게임 편집장) 씨 별세 = 2일,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특1호, 발인 4일, 032-327-3060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문제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측면에서 보면 더욱 절실하다. 이론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입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업 총수가 소유한 지분과 의결권 확보를 통해 실제로 행사하는 지배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계열사의 내부 지분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외국인 컨설턴트들과 협업을 하던 중 '책임'의 의미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친 적이 있다. 지배구조에 있어 책임을 논하려면 한국 기업도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두 종류의 책임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역할(Role) 대비 책임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는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상의 책임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의무까지 포괄한다.

최근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뜯어보면 이 같은 책임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56개 분석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15.8%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본인이 등기이사인 비율도 5.4%에 불과했다. 그룹 관련 사회적 이슈가 많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짚어지는 주체는 결국 회사의 등기이사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너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현실과 법적 책임의 괴리를 줄이려면 총수일가의 등기임원 등재는 확대되는 것이 온당하다.

총수의 법적 책임과 등기이사 선임 사이에는 현실적인 적합성 문제도 있다. 주총 실무를 다루다 보면 기업가치를 훼손한 오너 사내이사 후보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법 감정이나 대표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이나 배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한국과 같은 지배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너가 등기이사로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 개입을 관둘까. 여차피 경영에 관여한다면 이사로 등재하고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더구나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집행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면 전문 경영인이 혼자

결정하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다. 사면과 복권이 되었다면 회사 발전을 위해 총수의 이사 선임에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다. 장단점은 공존하겠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창출되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문제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측면에서 보면 더욱 절실하다. 이론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입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업 총수가 소유한 지분과 의결권 확보를 통해 실제로 행사하는 지배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계열사의 내부 지분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오너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의 사결정이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비슷해진다. 회사를 위한 결정으로 대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도 그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이다. 오너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예다.

반대로 총수 지분이 적는데 지배력이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의 분석

에 의하면, 국내 주요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 대한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1.6%인데 반해, 내부 지분율은 53.7%다. 상법상 1주1표제의 취지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오너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지배주주와 대다수 주주들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전형적인 예다. 총수의 자녀나 친족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빈번하다. 1%대의 지분으로 계열사 과반수 이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각종 기업 활동에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Responsibility)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Accountability)을 물을 수 있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 기업이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기는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룹 핵심 계열사는 더욱 필수적이라고 본다.



시인이 보는 경제  
이준훈 시인·BCT 감사

세밑에 친구로부터 '장무상망(長毋相忘)'이란 메시지를 받았다. 추사(秋史)의 세한도엔 낙관이 세 개나 찍혀 있다. 그림 오른쪽 위에 이름 '정희(正喜)'가, 왼쪽 아래에 '완당(阮堂)'이란 호가 찍혀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長無相忘'이란 낙관 하나가 더 있다. 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는 뜻이다. '서로'란 누구? 추사와 역관 이상적(李尙迪)이다.

조선 후기 명문가에서 태어나 중국에까지 이름이 난 학자인 추사도 당쟁을 피할 수 없었다. 나이 54세가 되던 1840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당시 관직은 병조참판, 섬으로의 유배는 종신형이었다. 유배 4년 차인 1843년 철저한 절망 아래 있던 추사에게 이상적이 '황조세경문편'이란 책을 멀리 제주도로 보낸다. 120권 79책을 받아 본 추사는 감동했다. 연행(燕行)길에서 어렵게 구했고 힘들게 가져온 것이리라.

1년 후 추사는 그림 한 점을 그린다. 그

리고 아래의 글을 덧붙여 이상적에게 보낸다. "지난해 '민학'과 '대운'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에는 우경의 '문편'을 보내주었다.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으로부터 사와야 하며 그것도 여러 해가 걸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들을 권세자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다."

태사공(太史公·사마천)이 말하기를 '권력으로 할한 자는 권력이 떨어지면 교분이 성글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대는 그러지 않으니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차가워져 다른 나무들이 시든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고 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前)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요, 후(後)라고 줄여든 것도 아니다.

추사와 이상적의 '장무상망(長毋相忘)'

17세 연하인 역관 이상적이 어떻게 추사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확치 않다. 이상적은 통역관이었지만 시문에도 밝아 추사의 문하를 자처했고 연경에 문우가 많았다. 왕홍(王鴻)과의 30년 교우가 특히 회자되었다. 말년에는 온양군수를 지냈다.

추사의 그림과 글에 이상적은 곧 답장한다. 그의 답서는 감격과 겸손으로 시종(始終)한다.

"'세한도' 한 폭을 엮으려 읽으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그다지도 제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하셨으며, 그 감개 또한 그토록 진실하고 절실하셨습니까? 아!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권세와 이익을 따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세파 속에서 초연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만 구구한 작은 마음에 스스로 하지 않으려야 아니할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하물며 이 서책은 비유컨대 몸을 깨끗이 지는 선비와 같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권세와는 결맞지 않는 까닭에 저절로 맑고 시원한 곳을 찾아 돌아간 것뿐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이번 사행(使行) 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연경

(燕京)에 들어가 표구를 해서 옛 지기(知己)분들께 두루 보이고 시문(詩文)을 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제가 참으로 속세를 벗어나고 세상의 권세와 이익을 초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과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적은 평생 중국을 열두 번 다녀왔다. 1845년 봄 이상적은 연경에 갔다. 세한도(歲寒圖)를 청나라 문사 16인에게 보이고 제찬(題贊)을 받아 왔다. 이후 세한도는 제작과정만큼이나 곡절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長毋相忘은 추사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중국 한나라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고 추사의 절친인 권돈인도 세한도를 그렸으며 長毋相忘이란 낙관을 사용하였다.

長毋相忘, '오래도록 그대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고쳐 읽는다. 청유가 아니라 다짐으로. 바야흐로 시절은 엄동(嚴冬)이고 경제는 설한(雪寒)이다. 송백이 야 제 홀로 설한을 견디지만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엮어 이 엄동을 버틸 수밖에. 그래서 그러므로 長毋相忘..

이투데이, 말투데이

☆ 퇴계(退溪) 이황(李滉) 명언  
"마음이란 붙잡기 힘들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움직인다."

조선 중기 선비. 성리학을 체계화해 '동방의 주자'라 불린다. 기호학파의 울곡(栗谷) 이이(李珣)와 함께 조선의 대학자로서 쌍벽을 이루었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인의(仁義)사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력으로 생몰일(生沒日)이 같은 그는 오늘 별세했다. 1502-1571.

☆ 고사성어 / 빙호추월(氷壺秋月)  
결백을 비유하는 옥황아리에 담긴 얼음과 가을날의 밝은 달이란 뜻으로 청렴결백한 마음을 비유한다. 고결한 선비를 표현하는 말이다. 송(宋)나라 학자 주송(朱松)이 주희(朱熹)의 스승인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인품을 기리며 "선생은 빙호추월과 같아서 한 점 티가 없이 맑게 비치니,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한 고사에서 나왔다. 원전은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조선시대 허균(許筠)도 "간과 쓸개를 매년 서로 비추고, 얼음 황아리를 찬 달이 내려 비추네"[肝鑿每相照 氷澗映寒月]라는 시구를 남겼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서울대 연설에서 한·중 우의를 빗대며 인용했다.

☆ 시사상식 / 무인경제(無人經濟)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채용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으레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란 뜻. 이 말은 '예를 좇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인 의례(宜例)가 변한 말이다.

☆ 유머 / 집 경치는 남의 것  
한강을 조망하는 집이 나왔다고 해서 27층 아파트를 보러 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잠실 쪽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나오므로 "와아! 강이다"고 외쳤다.

안주인이 나오면서 물었다.  
"강이 어디 있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여기는 시시하겠다고요?"

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바람 잘 날 없는 곳이었기에 간혹 이쪽 소식에 밝지 못한 지인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놓치고 살고 있을까' 의아했다.

출입처를 옮긴 지 두 달. 세상천지 중요

한 일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 여겼던 그곳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대신 나의 눈과 귀를 채운 건 커피값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니 내수가

어떻고 등의 일들이다. 이것이 국정농단보다 시시한 일일까.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줄어드니 거리를 채우던 화장품 로드숍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니 심야를 밝히던 편의점도 불을 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장 개개인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의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듯하다. 조금만 비켜서면 그렇지 않은데.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아찔고 저저고, 감히 월가월부할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모두의 삶에서 결코 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입처를 옮겼다. 이전 출입처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출입처 사람을 만날 때 꺼내는 단골 소재다. 그날도 이전 출입처가 어디였느냐는 홍보 담당자의 질문에 법조에 있었다고 답하니 "여기는 시시하겠어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여기가 시시한 곳인가?' 싶었지만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얼버무렸다.

공교롭게도 내가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던 해 출입처의 중심 사건은 나라를 뒤흔든 일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도라인에 섰으며, 재벌 총수가 구속된 후 풀려났다. '이제야 국정농단이 지나가는구나' 했더니 이번엔 사법 농단이 터졌다. 모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터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대표전화 (02)799-2600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팩스 (02)799-1003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유상(儒商)의 시조 자공(子貢)

# 공자가 뜻을 펼치게 도왔던 거부 제자

〈巨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중국인들이 '상업'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민족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 중국 상업의 역사가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래 '상업(商業)'의 '상(商)'이라는 한자는 '설문(說文)'에 "상, 종외지내야(商, 從外知內也)"라 하여 "바깥으로부터 안을 알다"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헤아리다', '계산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상(商)'은 동시에 "서로 의논하다", "상의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이 결합하여 '상업'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중국인 공동체 일귀은 상(商)의 전통

이후 '상(商)'이라는 용어는 "두 명이 상의 사람들이 함께 계획하고 토론한다"는 의미로 발전되었으며,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사회 문화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고 타협과 조화를 전통으로 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업공동체의 전통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가는 상업국가로서의 힘을 저력 있게 과시해 왔다.

고대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많은 상점들은 가게 앞에 '도주사업(陶朱事業)'이나 '단목생애(端木生涯)'라는 족자를 내 걸었다. 여기에서 '도주(陶朱)'란 춘추시대 오나라의 명신(名臣)이자 탁월한 상인이기도 했던 범여를 가리키며, '단목(端木)'이란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을 지칭한다. 중국 상인들은 범여와 자공을 존중하면서 일종의 신앙처럼 숭배하였고, 특히 자공은 '재신(財神)'으로 모셨다.

자공(子貢, 子贛으로도 쓰인다)의 이름은 단목사(端木賜)이고, 자공은 자(字)이다. 기원전 520년 춘추시대 말엽 위나라의 상인 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공자의 제자로서 중국 유상(儒商)의 비조로 추앙되는 인물이다.

##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재산을 모으다

논어 '선진(先進)'에서 공자는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났던 안회(顔回)와 자공을 비교하여 "안회는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하지만 항상 가난하였다. 그러나 자공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을 모았으며, 예측을 하면 항상 적중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공자의 유가사상은 의(義)를 중시하고 이(利)를 가배이 여긴다. 논어 '술이(述而)'에서 공자는 "만약 부가 도에 부합하다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 설사 나를 말뚝이꾼을 시켜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부(富)가 도(道)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천명하였다. "부귀란 하늘의 뜻"이므로 그는 반복하여 "이(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사상을 펼쳤다.

하지만 자공은 공자의 이러한 숙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물건을 비축하

여 조(曹)나라와 노(魯)나라 일대에서 비싼 물건을 팔고 싼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상업을 경영함으로써 공자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값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판다'는 말은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폐거(廢學)'로 표현되고 있다. '중니제자열전'은 계속하여 자공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물건 값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거부가 되었음을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 재물을 사랑하지만 도를 잊지 말아야

언젠가 공자 일행이 진(陳)과 채(蔡) 두 나라로부터 포위되어 식량이 끊어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공자 일행은 먹을 것도 없고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자공이 초나라에 사신으

인 손무(孫武)는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자공이 공자보다 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자공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내 학문 수준은 낮은 담장으로 둘러친 집이어서 누구든 볼 수 있지만, 공자 스승님의 학문 수준은 몇 길이 넘는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친 종묘와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더구나 능히 그 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이처럼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나라의 다른 대신 진자공(陳子禽)은 자공에게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겸손해서 한 말이오. 공자가 당신보다 무엇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오?"라고 반문하였다.

하지만 자공은 스승 공자의 성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의 사상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는 일을 자신의 평생 임무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얻은 정치적 명예와 부(富)를 토대로 삼아 스승 공자의 사상을 널리 천하에 전파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자는 자공의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에 그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

공자는 이(利)를 가배이 여기고 상인을 결코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천하에 떨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그 부유함이 제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단목사, 자공이었다.

## 명성과 지위 함께 얻으려면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貨殖列傳)' 편에서 자공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자공은 공자로부터 학문을 익힌 후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다. 그는 물건을 비축하여 초나라와 노나라 일대에서 비싼 물건을 팔고 싼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상업을 하여 공자의 우수호 70제자 중에서 그가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었다. 원헌(原憲)은 술지게미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궁벽한 동네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자공은 수레와 말이 무리를 이루었고 비단 예물을 가지고 각국을 방문하여 제후들의 연회를 받았다. 제후들은 그를 맞아 군신의 예가 아니라 평등한 예로써 대하였다. 공자의 이름이 능히 천하에 떨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공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야말로 부자가 세력을 얻으면 명성과 지위가 더욱 빛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자공을 아껴 그를 가리켜 '호련지기(瑚璉之器)'라 평가했는데, '호련지기'란 '재능이 매우 뛰어나 큰 임무를 담당할 만한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훗날 당 현종은 자공을 '여후(黎侯)'에 봉했으며, 송나라 도종은 '여공(黎公)'으로 한 단계 올렸다. 그리고 명나라 가정제(嘉靖帝) 때에 이르러 '선현단목사(先賢端木子)'로 봉해졌다.

군자애재 취지유도(君子愛財 取之有道).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데에 도(道)가 있다는 뜻이다. 바로 자공이 남긴 유상(儒商)의 기풍이었다.



단목사 자공. 아래 사진은 공자 사후 시묘(侍墓)살이를 했다는 자공의 움막이 있던 곳.



로 가서 초나라 왕을 설득하여 초나라가 군대를 출동시켜 공자를 영접하자 비로소 공자 일행은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본래 자공이 처음 공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자신이 오히려 공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논형(論衡) '강서(講書)'는 "자공이 처음 공자를 스승으로 모신 그 해에 스스로 공자보다 낫다고 여겼다. 2년째에 스스로 공자와 같다고 여겼다. 그러나 3년이 되자 공자에 미치지 못함을 알았다. 처음 한두 해 동안에는 공자가 성인임을 알지 못했으나 3년 뒤에는 성인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공은 공자의 학식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다고 말했으며 공자를 성인이라 칭하였다.

당시 자공의 명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어서 그가 오히려 공자보다 현명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적지 않았다. 노나라 대부

## 사설

#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자영업 기반 또한 무너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음식·숙박업부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도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말 자영업자 소비자동향지수(CSI)는 59로, 1년 동안 25포인트나 떨어졌다. 자영업이 과도하게 난립한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 탓으로만 볼 게 아니다. 최저임금 쇼크 말고 더 큰 요인을 짚기 어렵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기준하면 주휴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이 산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계산으로 월급 기준 174만5150원인데, 이는 시급 1만30원에 해당된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시급이 33%나 오른 것이다. 4대보험 부담액까지 포함해 사용자가 줘야 하는 월급은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직원을 내보내거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폐업해야 할 처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말 국무회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고, 대규모 규탄집회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월 환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국회에서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시행령만 고친 것도 잘못했다는 주장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원들의 임금을 더 주라고만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버티기 힘든 절박한 위기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 3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 채무 2조 원을 감면해 주고,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식의 땀집 처방이다.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 상황, 한계에 부딪힌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 능력, 불합리한 기업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주휴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근본 해결책이 급하다.



## 임중도원(任重道遠) ②

어제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이라는 말이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임을 밝혔었다. 그런데 '한시외전(韓詩外傳)'이라는 책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任重道遠'이라는 말이 나온다.

"증자는 거(菑) 땅에 살 때에는 적은 녹봉이라도 중히 여겼다. 봉양해야 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재상이 되기도 하고 지방의 수장이 되기도 하여 녹봉보다는 지위에 맞는 처신을 더 중시했다. 재물에 욕심을 내어 나라를 그르치는 사람과는 인(仁)을 함께 논할 수 없고, 근궁한 처지에 처했다고 해서 아버지 섬기기를 소략하게 하는 사람과는 효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인과 효를 행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먼 길을 가는 사람(任重道遠者)은 쉬기 좋은 자리를 골라 쉬지 않으며(불택지·不擇地), 집이 가난한 사람이 아버이를 섬길 때는 관직을 골라 벼슬하지 않는다(불택관·不擇官)."

인(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 자리를 탐하지 않아야 하고, 아버이를 봉양해야 할 사람은 미관말직의 험한 일이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해서 봉양할 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면 이른바 '잘나가는 자리'만 탐하여서는 안 될 테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윗선에 잘 보인 능력(?) 있는 검사나 판사는 수도권의 요직만 뱅뱅 도는 인사의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았었다.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험한 일이라도 마다 않고 성실, 정직하게 일해야 할 테지만 외국에서 노동자를 모셔(?) 오면 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노동의 현장에는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심한 일이다. 바르게 살겠다는 큰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재물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꽃길만 걸으려는 허황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PALISADE

## 팰리세이드 출시



Always Remarkable  
PALISADE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안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디젤 2.2 AWD 자동 8단(18"): 복합 11.8km/ℓ(도심:10.9km/ℓ, 고속도로:13km/ℓ) | CO2 배출량 163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010kg(인승), 2,020kg(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AWD 자동 8단(20"): 복합 11.5km/ℓ(도심:10.8km/ℓ, 고속도로:12.6km/ℓ) | CO2 배출량 167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020kg(인승), 2,030kg(인승) | 6단 DCT(4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18"): 복합 12.6km/ℓ(도심:11.9km/ℓ, 고속도로:13.8km/ℓ) | CO2 배출량 151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45kg(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18"): 복합 12.4km/ℓ(도심:11.6km/ℓ, 고속도로:13.6km/ℓ) | CO2 배출량 155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55kg(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20"): 복합 12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3.3km/ℓ) | CO2 배출량 160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55kg(인승), 1,965kg(인승) | 8단 DCT(3등급) ▶ 가솔린 3.8 AWD 자동 8단(18"): 복합 9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6km/ℓ) | CO2 배출량 191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인승), 1,950kg(인승) | 8단 DCT(5등급) ▶ 가솔린 3.8 AWD 자동 8단(20"): 복합 8.9km/ℓ(도심:8.0km/ℓ, 고속도로:10.4km/ℓ) | CO2 배출량 192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50kg(인승), 1,960kg(인승) | 8단 DCT(5등급) ▶ 가솔린 3.8 2WD 자동 8단(18"): 복합 9.6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2 배출량 178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870kg(인승), 1,880kg(인승) | 8단 DCT(4등급) ▶ 가솔린 3.8 2WD 자동 8단(20"): 복합 9.3km/ℓ(도심:8.3km/ℓ, 고속도로:10.9km/ℓ) | CO2 배출량 184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880kg(인승), 1,890kg(인승) | 8단 DCT(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자랑스러운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